소년단

1959. 4

렌마를 나르는 소년

주 태 순

백두산에 안개 내리는 아침
주경동 아동단원 세호는 길 떠났다.
집 한채 없는 초원 30리
다시 30리 심심 산'골 길

흰 광목 바지 저고리에
초록색 조끼 입은 세호
휘파람도 불며 두 활개 친다.
나는듯 고개도 훌쩍 넘어…

산 새도 날 길을 잃고 헤매는
이른 아침 안개 속을 뚫고
빨리도 가누나 세호는
화전 고개 넘어 아리랑도 부르며

먼 길에 보따리도 없이
시집간 누나 집에 나들이 가는가
모자도 안 쓴 까만 머리
안개 속에 가물 거리누나.

긴칼 찬 왜놈 순사 마주 오더니
—이놈아 첫 빨찌산에 련락 가지?
당장에 소년을 삼킬 듯한 독사 손이
귀'구멍까지 뒤지는데

눈'동자 아침 이슬같이 반짝이누나
이 보다 더한 북새판도 겪어 왔건만
이날 따라 소년의 심장 뛰노는 건
분명 귀중한 사연 지닌 탓이리

—장군님의 말씀 전하는 편지이니
부디 실수 없이 전하고 오라
심심 [illegible]집하던 빨찌산 중대장
아 세호는 입'술이 터지라 깨문다.

눈과 귀를 뽑겠다 울러메는 소리
산'골짝에 울리면 초목도 도사리누나
아직도 굳지 못한 뼈가 부서져도
렌마만은 기어이 전할 생각…

세호의 손가락 짬에서
슬며시 떨어진 가락 잎 하나
원쑤는 그 잎새를 못 보았어도
소년의 가슴에선 방맹이질 한다.

장군님 말씀 들어 있는 가락 잎
빨찌산 중대장께서 받은 잎새여!
이 렌마를 나르는 길 멀고 험해도
세호의 마음 혁명의 한 길로 달린다.

큰 호통 남기며 순사놈 지나간 후
소년은 다시 렌마를 가슴에 안고
고개도 훌쩍 넘어 휘파람 불며 간다.
활개 바람에 이깔나무도 후려들 듯

공산주의 건설의 후비대가 되기 위하여 항상 준비하자!

소년단 1959년 4호 내용

앞 표지 만경대의 봄 (만경대 중학교 문학 써클원들의 <백두산> 시랑송 모임)

김 일성 수상님은 우리를 이렇게 가르쳤다

황 순 희

나는 가끔 나의 아동단원 시절을 회상하군 합니다.

그 때마다 나의 귀'전에는 우리 아동단원들을 그처럼 아끼고 사랑해 주시던 김 일성 수상님의 부드러운 음성이 들려오군 합니다.

김 일성 원수 항일 유격부대들이 투쟁하던 시기, 그때는 참으로 많은 곤난과 애로들이 중중첩첩으로 가로 놓였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수상님께서는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한시도 우리 아동 단원들을 잊으신 일이라군 없습니다.

우리 아동단원들은 곤난한 유격 투쟁 시기에도 항상 김 일성 수상님의 따뜻한 사랑 속에서 배우며 일하고 자랐습니다.

김 일성 수상님은 우리 아동단원들을 위하여 깊은 배려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였습니다.

수상님은 언제나 우리 아동단원들에게 누구 보다도 먼저 옷들과 식량들을 보내여 주시군 하였습니다.

당시 아동단원들은 김 일성 수상님을 친 아버지 어머니 이상으로 따랐습니다. 만일 수상님을 며칠간이라도 뵙지 못하는 때면 우리들은 너무도 안타까워 울기까지 하였습니다.

이처럼 수상님의 품은 우리 아동단원들에게 해'별처럼 따사롭고 너그러운 행복과 희망의 품이였습니다.

나는 이제 나의 아동단원 시절에서 잊을 수 없는 몇가지 수상님의 가르침에 대하여 이야기해 드리려고 합니다.

부모님을 존경하고 사랑해야 한다

항일 유격 투쟁이 바쁘고 어려웠던 때에도 김 일성 수상님은 군무의 여가만 계시면 흔히 우리 아동단원들 속에 계시군 하였습니다.

당시 우리 아동단원들은 대개 혁명 투쟁에서 부모를 잃은 고아들이 였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우리들은 희생된 부모님들을 못내 그리워하다 우는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수상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부모들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슬기롭고 훌륭한 분들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수상님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시군 하였습니다.

수상님은 항상 어머니께서 수상님과 동생된 분을 재우시던 이야기를 말씀해 주시군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수상님은 낮윽한 음성으로 당시 어머니가 부르시던 자장가를 우리들에게 들려 주시였습니다.

나는 지금도 수상님의 그 부드럽고도 아름다운 자장가가 귀'전에 들리는 것만 같습니다.

우리는 그 때마다 어머니 품에 안긴 행복하고도 평온한 마음으로 수상님이 부르시는 자장가에 귀를 기우리군 하였습니다.

수상님은 자장가를 다 부르시고 나면 조용히 우리들을 돌아 보시며 이런 말씀을 꺼내시였습니다.

《…부모님을 존경하고 사랑해야 한다.

너희들이 오늘 이처럼 자라게된 것도 다 너희 부모님들의 극진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이다. 추우면 추울세라 더우면 더울세라 한시도 마음 놓지 않고 걱정해 주신 보람으로 너희들은 이처럼 혁명을 위해 싸우는 훌륭한 아동 단원들로 될 수 있었다.

너희들이 부모님 은혜에 보답하는 길—그것은 너희 아버지 어머니들이 채 이루지 못하고 세상 떠난 혁명 위업을 너희들이 물려 받아 훌륭히 완성하는데 있다!》

수상님의 이 말씀은 우리의 아동단 생활을 더 규률 있고 활기 띄게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들은 아버지 어머니들의 대를 이여 반드시 혁명 위업을 완성하리라고 굳게 결심하군 하였습니다.

배우고 배우고 또 배워야 한다

나는 지금도 밀영 사무실에서 잠시도 쉬지 않으시고 책을 읽고 계시던 수상님의 모습을 잊을 수 없습니다.

수상님은 참으로 시간을 아껴가며 책을 읽으시군 하였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우리 아동단원들은 다른 곳에서는 아무리 떠들고 야단치다가도 수상님이 계시는 사무실 근처만 가면 약속이나 한 것처럼 모두 입을 다물고 조용히 지나가군 하였습니다.

한 번은 수상님이 나하고 몇몇 아동단원들을 사무실에 부르신 일이 있었습니다.

나는 지금도 막 좋아라 야단치며 수상님께로 달려 가던 때 일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수상님의 사무실에 들어 갔을 때 목조 책상 우에는 새 책, 낡은 책, 그리고 많은 신문들이 수두룩히 쌓여 있었습니다. 그 책들에는 우리 말로 쓴 것도 있었고 외국어로 된 것도 많았습니다.

이때 수상님은 우리더러 해진 책들과 빨간줄을 친 신문들을 내주시며 책가위들을 수리하고 줄 친 신문들은 오려서 스크랩 책에 붙여줄 수 없겠느냐고 정중하게 부탁하시는 것이였습니다.

당시 수상님은 어떤 적은 일이거나를 막론하고 우리들의 손을 빌려야 할 일이 계실때면 언제나 정중하게 부탁하군 하시였습니다.

우리들은 너무도 기쁘고 좋아서 서로 많은 일을 하겠다고 앞을 다투기까지 하였습니다.

이날 우리는 신바람이 나서 책가위를 수리하며 또는 신문 기사를 오려 붙히는 일을 하였습니다.

나는 지금도 수상님께 묻던 일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 많은 해진 책들을 뭣에 쓰시려나 궁금해서 수상님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장군님! 장군님은 뭣에 쓰시려고 이런 해진 책들도 구해 오십니까?》

내가 묻는 이 말에 수상님은 웃으시며 대답하셨습니다.

《우리는 무엇이든 다 알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배우고 배우고 또 배워야 한다. 더욱히 혁명을 하는 사람들은 누구 보다도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은 지식을 가져야 한다. 왜 그러냐 하면 지식은 곧 힘이기 때문이다》

수상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 더러 가장 중요한 것은 배우는 일이라고 거듭 말씀하셨습니다.

이날 수상님은 우리 일이 끝났을 때 이제는 휴식하라고 하시면서 우리와 마주 앉으셨습니다.

우리는 너무도 좋아서 서로 앞을 다투며 우르르 수상님 곁으로 모여 들었습니다.

이것은 수상님 품에서 생활하던 우리에게는 흔히 있는 일이였습니다.

《장군님! 이젠 옛말 하나 해 주세요》 하고 누군가 졸랐습니다.

우리는 수상님만 만나면 언제나 옛말을 졸으군 하였습니다.

수상님은 웃으시며 그러마고 우리의 청을 받아 주시군 하였습니다.

수상님은 주로 옛'이야기에 나오는 나라와 인민을 사랑한 용맹하고도 지혜로운 장수에 대하여, 그리고 부모에게 효도를 한 슬기로운 아이들에 대하여, 부지런한 사람과 게으른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에 대하여 재미 있게 말씀해 주시군 하였습니다.

수상님은 어쩌도 우습고 재미 있게 말씀을 잘 하셨던지 우리는 배를 끌어 안고 웃군 하였습니다.

수상님은 또한 우리 혁명 승리에 대하여, 우리 나라가 일제에 의하여 강점 당하던 당시 형편에 대하여, 위대한 쏘련 인민들이 레닌 선생의 지도하에 짜리 백파놈들을 반대해 투쟁하던 일에 대하여도 재미 있게 말씀해 주시군 하였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재미 있는 이야기를 들려 주고 나서 수상님은 언제나 이런 말로 끝을 맺으시군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국주의는 반드시 멸망하고 사회주의는 반드시 승리한다.》

수상님은 바로 이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 모든 이야기들을 이것으로 결론 짓군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수상님은 우리 나라도 머지않아 위대한 쏘련의 모범을 따라 반드시 사회주의 나라로 될 것이라고 힘을 주어 말씀하시군 하였습니다.

수상님의 재미 있는 말씀을 들을 때는 그저 유쾌해서 아무 생각도 없이 듣지만 다 듣고나면 반드시 머리'속에는 훌륭한 새 지식들이 고시란히 남군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들의 학습은 더 보람차게 진행되군 하였습니다.

우리의 고생은 앞으로 좋은 세상에서 살기 위해서 하는 고생이다

언젠가 나는 정숙 동지와 둘이서 이야기를 하다 운 적이 있었습니다.

그 까닭은 혁명에서 희생된 옛 동무들과 오빠 생각이 났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들이 희생되였다고 해서만 운 것은 결코 아니였습니다.

내가 울게된 것은 그들이 밥도 먹어 보지 못하고 풀뿌리와 나무껍질만 먹다 희생된 것이 가슴 아팠기 때문입니다. 더욱히 이런 생각은 우리가 가끔 쌀밥을 먹거나 만두를 받아 놓을 때 더욱 그러 했던 것입니다.

이때에 수상님이 사무실에서 나오시다가 울고 있는 나를 발견하시였습니다.

수상님은 나에게로 걸어 오시더니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너 어째 우느냐?》

수상님 말씀에 나는 울음을 뚝 끊고 눈물을 훔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는 그 사유를 말씀 올렸습니다.

내 말을 듣고 계시던 수상님은 잠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서 계셨습니다.

나는 이때 수상님의 얼굴에서 어딘가 괴로워 하시는 기색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한 순간이였습니다.

이윽고 수상님은 내 어깨에 다정히 손을 얹으시며 이런 말씀을 들려 주시였습니다.

《애 순희야! 생각해 봐라, 집이 없어 풀밭에서 자고, 먹을 것이 없어 나무껍질을 벗겨 먹으며 자라야 하는게 너만 가슴 아픈 일이겠느냐 내 마음인들 어떠하겠니… 그렇다구 슬퍼만 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왜 지금 이런 고생을 하는가를 똑똑히 알아야 한다. 우리의 고생은 앞으로 좋은 세상에서 살기 위해서 하는 고생이다. 순희야! 혁명을 하는 사람은 널리 생각할 줄 알아야 한다. 지금의 고생은 다 잊어 버리고 열심히 배워라! 이것만이 너희들에게 중요한 일이다.》

나는 그후부터는 어렵고 슬픈 일이 생길 때면 항상 수상님의 이 말씀을 또박또박 외워보군 하였습니다. 그러면 나의 가슴은 가을 하늘처럼 탁 틔여져 시언했고 새로운 희망과 용기가 샘물처럼 솟구쳐 올랐습니다.

× ×

이와 같이 우리 아동단원들은 수상님의 어버이 같은 사랑과 가르침을 받아 믿음직한 혁명 투사로 자라날 수 있었습니다.

나는 지금도 나의 생활에서 항상 수상님의 가르침을 명심하고 있으며 수상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대로 생각하며 행동하고 있습니다.

수상님의 가르침 이는 어두운 밤의 등대와 같이 우리의 앞길을 밝혀주는 힘과 지혜와 애국심의 원천이였던 것입니다.

국립중앙 해방 투쟁 박물관에서

리 호일

파란 비단옷을 떨쳐 입은듯
푸른 산 푸른 언덕 꽃피는 아침에
우리는 선생님따라 혁명가요 부르며
해방 투쟁 박물관을 찾아 갑니다

하얀 조약돌 밟으며 앞마당에 들어서니
원수님 동상이 웃으시며 서 계십니다.
휘황한 금별이 빛나는 넓은 가슴에
우리는 꽃다발 드리며 인사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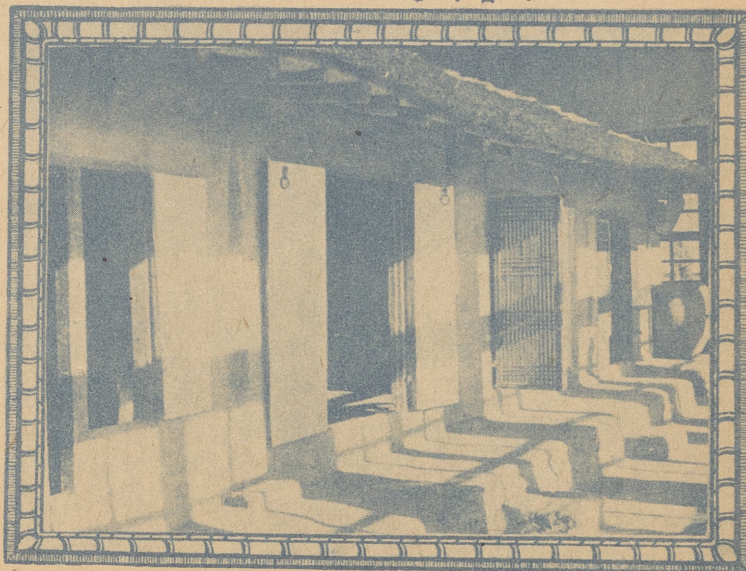
원수님이 걸어오신 혁명의 길 더듬어
백두의 높은 뜻 가슴마다 새기며
공산주의 건설의 후비대가 되기 위하여
배우고 일하며 항상 준비 하리라

만경대의 전경

어느듯 한장의 그림 사진 앞에 서서
우리는 좀처럼 발'길 옮길 수 없었습니다
멀리 대보산이 장군봉처럼 솟았고
대동강 유유히 감돌아 흐르는 만경대

우리 민족의 영웅 원수님이 나서 자란곳
무지개를 잡고저 달리던 아름다운 땅
유서깊은 혁명의 요람지 만경대는
우리 붉은 마음의 고향이랍니다

시들었던 풀도 되살아 싱싱 푸르고
만경대에 금빛 해'살솟는 사월 보름날
삼천만의 태양 김 일성 원수님
칠골 외가에서 탄생 하셨나이다.

초가집 오막사리 이끼돋은 댓돌에
원수님 첫발자국 력력히 어리었으니
여기서 절세의 애국자 키돋음 하신
유서 깊은 력사의 집이랍니다.

칠골에 있는 김 일성 원수의 생가

유년 시기 아버지의 교양을 받으시는 김 일성 원수

가정에는 화목 동
나라에는 영웅 동
아버님의 가르치는 노래 부르며
나라의 운명을 건지려는 참뜻을 배우며

조국의 나무 한그루 풀 한포기도
사랑하고 아끼고 잘 가꾸라는
아버님의 자애롭고 엄하신 교양속에
원수님은 열렬한 애국자로 자랐습니다.

동북으로 가시는 김 일성 원수

조상의 뼈 묻힌 고향을 뒤에 두고
원수님은 압록강을 건너 가셨습니다.
동북땅에서 왜놈과 싸우시던 아버지
위급한 병에 걸리시였다는 소식 들었으니

이 나라 북변을 흐르는 어머니 강
사랑하는 인민들 빼앗긴 땅 등지고
북으로 떠나가며 피 눈물 뿌린 강
여울 물소리 더욱 가슴에 설레였습니다.

나는 반드시 간악한 원쑤와 싸우리라
싸워서 이기지 않으면
다시 이 강을 건너 오지 않으리라
원수님의 가슴은 높이 고동 쳤습니다.

《나는 혁명을 위하여 싸우는 아동 단원이다!》

—아동단원 리 화순에 대한 이야기—

박 응 호

1933년 가을이였다.

연길현 왕우구 재지팡이란 부락은 이른 새벽부터 술렁거렸다.

부인들은 서둘러 밥을 지었고 늙은이들과 아이들은 짐을 꾸리기에 바빴다. 사실은 신새벽에 유격대로부터 긴급 련락이 와서 지금 《토벌대》 놈들이 막동으로 해서 오고 있으니 장정들은 보초망을 느리고 경비를 강화하고 인민들은 빨리 피하라고 일렀기 때문이다.

당시 일제놈들은 우리 유격 근거지를 없애 보려고 소위 《토벌》을 대대적으로 진행하던 때이므로 인민들은 한시도 마음을 놓고 살 수 없었다. 적들이 들어 온다는 소식만 있으면 인민들은 재빨리 짐들을 꾸려 가지고 산으로 피해야만 했다.

이 날 새벽 온 부락이 피난 갈 차비로 떠들석 하고 있을 때 재지팡 아동단 중대장인 리 화순 (14세)과 황 순희들은 북동의 아동들에게 보내는 50벌이 남짓한 의복들을 꾸리고 있었다. 이것들은 바로 어제 유격대들이 왕우구 용구촌의 적들을 소탕하고 로획한 의복들이였다.

50벌의 의복을 이고 지고 두 소녀는 이슬내린 풀밭으로 해서 재지팡을 떠났다.

때는 가을이라 싸늘한 새벽 공기가 온몸에 스며 들었다. 풀숲에 맺혔던 이슬이 살에 닿을 때마다 부르르 몸이 떨렸다. 무명 치마 자락은 이슬에 젖어 무겁게 쳐졌다.

그러나 화순이와 순희들은 걸음을 재여 바삐 걸었다.

적 《토벌대》 놈들이 쳐들어 온다는 소식은 두 아동단원들의 마음을 조바심치게 하였다.

그들의 머리'속에는 부락에 밀려든 적들이 닥치는 대로 인민들을 죽이고 불질하는 장면이 자꾸만 얼른거려 불안스러웠다.

더우기 의복들을 이고 지고 걸어 가는 이들 앞길에도 언제 적들이 나타날지 모르는 일이여서 더욱 가슴이 두근거렸다.

길도 없는 밀림을 꿰뚫고 걸어 가기란 헐한 일이 아니였다. 그러나 이들은 조직이 준 임무를 훌륭히 완수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가슴에 깃드는 불안을 날려 버렸으며 길 없는 길을 걷는 고통을 참았다.

화순이와 순희들이 이런 임무를 수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였다.

아동단의 간부들인 이들은 항상 어렵고 곤난한 임무만 제기되면 누구보다도 먼저 앞장서 나서군 하였다.

흔히는 유격대의 통신 련락과 구역내 보초 검열을 진행하는 한편 이들은 가끔 놈들의 통치 구역으로 들어가 적정을 알아 오며, 또는 혁명가 자녀들을 아동단에 받아 들이는 공작도 진행하였다.

이러한 모든 어렵고 힘든 일에서도 화순이와 순희들은 훌륭히 임무들을 수행하군 하였다.

이런데로부터 유격대에서는 언제나 어려운 일이 제기되면 이들에게 맡기군 하였던 것이다.

깊은 밀림도 끝나고 이들은 골짜기에 자리 잡은 중촌이란 자그마한 부락이 내려다 보이는 언덕에 이르렀다.

아직 날이 밝기에는 좀 시간이 있었다. 별안간 멀리에서 개들이 짖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 왔다.

두 소녀는 문득 발을 멈추고 조심히 아래'부락의 동정을 살피였다.

《순희야! 여기서 좀 기다렸다 날이 밝은 다음에 떠나는게 어떠냐! 암만해도 정황이 이상하다.》

화순은 무엇을 짐작하였던지 심중한 투로 말하였다.

화순은 본래부터 아동단을 지도하는 중대장으로서 항상 경각성이 높고 조심성이 있는 동무였다. 화순인 아동단 생활을 통해 어떤 정황에서도 재빨리 사정을 판단할 줄 알았다.

순희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화순이의 말대로 행동할 것을 동의하고 이고 지고 있든 짐들을 풀숲에 내려 놓았다.

두 소녀는 이슬 발에 엎드려 날 밝기만 기다리고 있었다. 수림 속에서 지저귀는 이름 모를 새들의 울음 소리가 처량하게 들려 왔다.

별안간 한 두방의 총소리가 메아리쳐 들려 왔다.

그바람에 두 소녀는 허리까지 치는 풀숲에 납작 엎드려 형편을 살펴보고 있었다. 두 소녀는 더욱 경각성을 높여 눈아래 중촌 부락쪽만 살폈다.

그 후로는 아무런 소리도 들려 오지 않았다. 이윽고 먼 동이 트고 날이 활짝 밝기 시작하였다. 두 소녀는 급히 떠날 차비를 하고 풀숲에서 일어났다.

보따리들을 이고 진 인민들이 우'골로 이동하는 것이 눈에 띄였다.

《화순아! 저것 봐! 〈토벌대〉 놈들이 벌써 근처에 온 모양이야! 인민들이 피난 가는구나!》

순희가 황급히 화순이를 눌러 앉히면서 소리쳤다.

《개새끼들! 어느새 여기까지 왔담!》 화순이의 그 큰 두 눈에서는 번쩍 불이 이는 것만 같았다.

그는 지긋이 작은 입술을 깨물었다.

사방은 쥐죽은듯이 고요하였다. 피난 가는 인민들도 더는 보이지 않았다. 모든 것이 불길한 침묵 속에 잠겨 버린듯 하였다. 다만 밀림의 뭇새들만이 이따금 지저귈 뿐이였다.

두 소녀는 반 시간 남아 풀숲에 엎드려 동정을 살폈다.

《얘 화순아! 내 소변보러 간다!》 순희가 이렇게 말하며 앉은 걸음으로 언덕을 내려 갔다.

그가 움직일 때마다 높은 풀발이 살랑살랑 흔들거렸다. 순희가 언덕을 내려 갔을 때였다. 별안간 화순의 등 뒤에서 와스삭 소리가 나며 누군가 덥석 화순이의 머리채를 검어 쥐였다.

《앗!》 화순이는 가는 비명을 지르며 벌떡 일어났다.

그러자 와락 두 놈이 뛰미쳐 나타나더

니 화순이 앞을 떡 막아 섰다.

그놈들은 일제 《토벌대》 놈들이였다.

순간 화순이는 눈앞이 아찔해 지는 것을 느꼈다.

벌써 한 놈은 화순이 앞에 놓인 보따리를 풀기 시작하였다. 의복들이 나왔다.

《음! 이년 잘 만났다!》

그놈들은 큰 발견이나 한 것처럼 징글맞은 웃음을 지으며 화순이 앞으로 다가왔다.

화순이 눈에 차겁게 번쩍이는 그놈의 총창이 얼른거렸다.

《너 이것 어데서 났소까!》

《몰라요》

《몰라?》

《정말 몰라요!》

화순이는 우정 울먹거리며 모른체를 하였다. 그러자 그놈은 무지한 주먹으로 화순이의 면상을 냅다 때렸다.

화순이는 픽하니 그 자리에 쓰러졌다. 무언가 코 밑으로 뜨거운 것이 흘러 내렸다. 피였다.

땅 우에 쓰러지는 순간 화순이의 머리 속에는 아픔보다도 먼츰 매일처럼 아동단에서 진행하던 조기회며 저녁 토론회 때마다 아동 단원들에게 하던 말이 되살아 났다. 《아동단원은 죽는 한이 있드라도 조직의 비밀을 지켜야 한다!》

《그렇다! 나는 지금 아동단원의 임무를 끝까지 해내느냐 못해내느냐 하는 순간에 놓여 있다. 정신을 차리자! 그리고 무서워 말자!》

화순이는 지긋이 입술을 깨물며 비장한 결심을 다지였다.

한편 언덕 밑으로 내려 갔던 순회는 별안간 우에서 떠드는 놈들의 고함소리에 급히 보따리를 안은채 대굴대굴 공처럼 굴러 내려 갔다. 그는 풀숲에 납작 엎드려 조마조마해서 기다리고 있었다.

가늘게 내쉬는 숨소리도 그에게는 큰소리로 들리는 것 같았다. 그는 두 손으로 입을 꽉 막기까지 하였다.

언덕 우에서는 고문이 시작된듯 가끔 화순의 가냘픈 신음 소리가 들려 왔다.

순회이는 자기가 고문을 당하는듯한 아픈 가슴을 안고 꼼짝도 하지 않고 엎드려 있었다.

세 놈의 《토벌대》 놈들은 얼굴에 피투성이를 한 화순이를 다시 일으켜 세웠다. 구레나룻이 시컴한 놈이 총창을 번쩍거리며 화순이에게 대들었다.

《이런 물품 어디 있어! 그것부터 대라!》

《몰라요!》

《좋다! 그럼 너 어디서 사는 년이냐?》

《몰라요!》

《칙쇼!》

아무리 물어도 모른다는 단 한마디밖에 하지 않는 화순이가 얄미웠던지 그놈은 살기띤 뻘건 눈알을 뒤집어 가지고 미친듯이 어린 화순이를 치고 차고 야단쳤다. 화순이는 그 때마다 망돌처럼 뱅글뱅글 풀발 우를 맴돌이 쳤다.

놈들은 반 죽엄이 된 화순이의 단발머리채를 검어 쥐고 그를 다시 일으켜 세웠다.

화순이는 정신이 아찔아찔 하였다.

하늘과 땅이 빙글빙글 돌아 갔다.

그래도 그는 두 발에 힘을 주어 비칠거리는 몸을 가까스로 지탱했다. 놈들 앞에서 비굴하지 않으려는 마음에서였다.

화순이는 고개를 번쩍 들어 놈들의 면상을 꿋꿋이 쏘아 보았다. 그의 눈에서는 이미 공포와 불안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그대신 무서운 적개심과 반항의 불'빛만이 이글거렸다.

놈들은 좀처럼 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짐작하였던지 화순의 단발 머리칼을 와락 움켜 잡으며 소리쳤다.

《대라! 어디서 살며 어디로 가져 가는가 말이다! 만일 이번까지 대지 않으면 당장 죽여 버릴테다!》 하고는 방금 찌를듯이 시퍼런 총창을 화순이의 좁은 가슴에 선뜻 가져다 대였다.

순간 화순이의 가슴에는 사라졌던 무서움이 왈칵 되살아 났다. 심장은 금시에 뛰쳐날듯 높뛰였다. 그의 머리 속에는 뭐가 뭔지 통 걷잡을 수 없으리만치 흐리멍텅해졌다.

언덕 밑에 숨어 있는 순회는 화순이의 가냘픈 비명 소리가 들려 올 때마다 화순이를 구원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불탔다.

그것이 안 되는 일이라면 차라리 화순이 대신 자기가 나설 것도 생각하였다.

그러나 이것도 안 되는 일이다. 만일 두 사람 다 놈들에게 붙잡히게 되는 날이면 조직이 준 임무는 누가 수행한단 말인가! 순회는 터질듯한 가슴을 안고 계속 누워 있을 수 밖에 없었다.

화순이는 안깐힘을 써가며 침착하려고 애를 썼다. 그의 가슴 속에는 삶과 죽엄이 서로 싸웠다.

《나는 혁명을 위하여 싸우는 아동단원이다! 만일 놈들 총창이 무서워 조직의 비밀을 지켜내지 못한다면 나는 더러운 개가 될 것이 아닌가! 그렇게는 절대로 될 수 없다! 그렇다. 죽음으로 조직의 비밀을 지키자!》

화순이는 정신을 차리듯 고개를 한 두 번 힘있게 흔들었다.

화순이는 입술이 터지라고 꽉 입술을 깨물었다.

놈들은 다시금 총창을 번쩍이며 대들었다. 구레나룻이 시컴한 놈의 총창이 번득이였다. 총창은 어린 화순이의 허벅다리를 찔렀다.

《앗!》 화순이는 모진 아픔에 가는 신음소리를 내며 비츨거렸다.

뜨거운 피가 풀발을 물들이기 시작하였다. 화순이는 끝내 쓸어지지 않고 또다시 꿋꿋이 버티고 섰다.

두 번째 놈의 총창이 다시 화순이의 다른쪽 허벅 다리에 파고 들어 왔다.

화순이는 쓸어졌다. 쓸어지자마자 그는 다시 일어나 앉았다.

화순이의 눈에는 놈들이 흡사 미친 개처럼 보였다. 이와 함께 그는 죽음이 바로 눈 앞에 다가 왔음을 짐작하였다.

그는 고개를 번쩍 들었다. 순간 푸르디푸른 파란 가을 하늘이 두 눈에 안겨 왔다. 거울처럼 맑은 하늘에 수리개 한 마리가 유유히 날고 있었다. 문득 어린 시절 아버지 품에 안겨 저런 수리개를 잡아

달라고 졸으던 때 일이 생각났다. 그러자 그의 눈앞에는 인자한 아버지며 어머니 얼굴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 갔다. 생각은 다시 끄리를 이여 노란 나리꽃 바자로 둘리운 옛집이 떠 올랐다.

그러자 화순이는 다시는 만나 보지 못할 아버지 어머니가 안타깝게 그리워 졌다.

《이년! 아직도 입을 열지 않을테냐?》

악이 오른 구레나룻이 다시금 피묻은 총창을 화순이 가슴에 대며 소리쳤다. 화순이는 가물거리는 정신을 가다듬고 놈들을 노려 보고만 있었다.

그러자 놈들은 더욱 악이 바쳐 펄펄 뛰였다. 한 번 두 번 세 번 놈들은 련방 화순이의 온 몸을 총창으로 찔렀다.

화순이는 피 바다가 된 풀밭 우에 쓸어졌다. 이제는 아픔도 괴로움도 감각을 잃은채 그는 풀발 우에 반듯이 누워 있었다.

놈들은 그래도 성차지 않은듯 다시금 화순이의 머리채를 검어 쥔채 그를 일으켜 앉히였다.

《마지막으로 묻는다. 너의 집은 어디냐?》

《모른다.》

화순이는 똑똑히 그러면서도 힘있게 외마디 대답을 하였다. 그러자 뭐라 떠드는 놈들의 짐승 같은 울부짖음이 들려 왔고 총알 재우는 소리들이 련겊어 들려 왔다.

화순이는 번쩍 고개를 들었다.

《이 개새끼들아! 죽이겠으면 죽여라 내 뒤를 이을 사람은 수없이 많다! 나는 아무 것도 모른다! 조선 독립 만세! 혁명 만세!》

화순이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세 방의 총소리가 메아리쳐 울렸다.

놈들이 돌아 간 후 언덕 밑에 숨어 있던 순희가 올라 왔을 때 화순이의 전신은 놈들 총창에 의하여 버리둥지처럼 찔리워 있였다.

순희는 화순이를 끌어 안고 오래오래 소리없이 울었다.

이리하여 14세의 어린 영웅 리 화순은 빛나는 생애를 혁명을 위해 마치였다. 화순이는 아동단원 답게 죽었다. 김 일성 원수에 의해 조직되고 지도된 아동단에서 교양받은 리 화순은 조직의 비밀을 위하여서는 자기의 목숨도 서슴없이 내 바치였다.

그는 비록 죽었으나 그의 빛나는 혁명 정신은 영원토록 우리들의 심장의 고동과 함께 살아 있을 것이다.

소문난 분단

—해주 제 1 중학교 대 2분단에서—

허 정 룡

해주 1중 학교 운동장에 들어 서면 먼저 눈에 안겨 오는 것이 김 일성 원수님의 어린 시절의 동상이다.

이 동상은 원수님을 따르는 이 학교 소년단원들이 자기들의 로력으로 이룩한 성과로 만들어 세운 동상인 것이다.

그 곁에 흰 카텐을 드리운 아담한 석조 건물이 서 있는데 이곳이 바로 이 학교 대《조선 로동당 력사 연구실》이다.

소년단원들은 바로 이곳에서 김 일성 원수님의 혁명 활동을 연구하며 그 분의 빛나는 혁명 정신을 배우고 있는 것이다.

《소문》난 분단

이 학교 2분단은 학교 대에서도 소문난 분단이다. 한 때 이 분단은 학습, 규률, 로동 등 어느 면에서나 《뒤떨어졌다》는 점에서 《소문》을 낸 일이 있었다.

학기초만 하여도 강 충평 동무는 가끔 수업 중에 장난을 잘하여 교실을 뒤숭숭하게 하는 그런 동무였다. 시험 포전 일과 그 밖의 유익한 로동을 하게 되면 강 충평 동무를 비롯한 장 재문, 리 성남, 전 동규와 같은 일부 동무들은 먼저 저울질하여 한다느니 못한다느니 시비를 걸었다. 이렇게 분단내 몇몇 동무들은 패를 지어 다니며 장난했고 분단 열성자들과 동무들의 말은 듣지도 않았다. 그리하여 분단은 영예롭지 못한 소문을 남기였던 것이다.

그 중에서도 강 충평 동무는 더 큰 《말썽'군》이였다. 그는 담임 선생외에 다른 선생님들은 본체만채하였다. 뿐만 아니라 소년단 넥타이는 늘 바지 주머니에 쑤셔 넣고 다녔다.

강 충평 동무의 부모는 외아들인 그를 무척 사랑했다. 이것을 좋은 기회로 강 충평 동무는 모든 일을 제멋대로 하였다.

이런 형편에서 분단 위원장 홍 종완 동무와 열성자들은 항상 어떻게 하면 뒤떨어진 분단 사업을 추켜 올릴 것인가를 의논하였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 보다도 먼저 강 충평 동무를 비롯한 몇몇 장난'군

을 참된 소년단원으로 돌아 오게 하는 일이 필요했다.

어느 날 분단 모임에서는 강 충평, 전 동규, 장 재문 동무들과 같이 분단 생활에 게으른 동무들을 잘 타일러 주었다. 그 자리에서 그들은 약간 수그려 지는상 싶었다. 그러나 이것도 그시 뿐이였다.

분단 열성자들은 계속 말썽을 이르키는 이들 문제를 가지고 소년단 지도원 선생님과 의논하였다. 이날 지도원 선생님은 항상 충고만 할 것이 아니라 그들이 스스로 잘못을 깨닫도록 도와 주며 타일러 주어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다.

지도원 선생님의 말씀을 들은 후 분단 위원회에서는 분단의 말썽'군을 도와 주기 위해 여러 가지로 의논했다.

그후 어느 날 분단에서는 열성자를 비롯한 몇몇 동무들과 강 충평 동무들에게 《조선 로동당 력사 연구실》에서 《아동단 준칙》을 연구 발표하게끔 위임하였다. 뜻밖의 일이여서 강 충평 동무는 어떻게 준비할지 몰랐다.

당황해서 집에 돌아 온 그는 학교 《연구실》에서 빌려 온 《혁명의 꽃봉오리》를 펼쳐 들었다. 《—조직에 복종할 것, —충실히 단결할 것, —견고하게 공작할 것, —학습에 노력할 것》, 이렇게 그는 읽어 내려갔다. 이 때에 밖에서 《구구구…》 비둘기 우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는 벌떡 일어 났다. 그가 기르는 여덟마리 비둘기 중 두 마리가 어제도 오지 않았던 것이다. 《잃어졌던 비둘기가 아닐가?》하고 생각한 강 충평 동무는 읽던 책도 쥐여 뿌리고 훌쩍 밖으로 내달렸다.

《연구실》에서 진행되는 발표 모임 날이였다. 준비도 없이 강 충평 동무는 일어섰다. 《에! 지난 날 아동단원은 에, 준칙을 잘 지켰습니다. 에, 그러나 우리는…》 준비 없이 동무들 앞에 나선 그는 덤벼쳤다. 그는 이마의 땀을 씻기 위해 바지 주머니에 손을 넣었다. 이 때에 그의 손에는 손수건이 아니라 붉은 넥타이가 쥐여 나왔다. 그러자 방안은 술렁거리기 시작하였다. 넥타이를 손에 쥔채 난처해진 그는 자리에 가 앉아 머리를 숙였다.

동무들은 김 일성 원수님의 직접 지도하에 아동단원들이 일제와의 싸움에서 어떻게 조직에 복종하였으며 어떻게 동지를 사랑하고 단결하였는가 하는 이야기와 기타 많은 훌륭한 일을 모범 받자고 토론했다.

분단 지도원 선생님은 준비를 해오지 않은 강 충평 동무를 따뜻이 타일러 주며 다음 번에는 잘 연구해 와서 이야기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하셨다.

그러나 그 후에도 강 충평 동무의 행동에는 이렇다 할 고쳐진 점이 보이지 않았다. 고쳐진 것이 있다면 그저 일부 말썽'군들과 밀려다니는 것이 좀 적어 졌을 따름이다.

반 성

그후 분단에서는 다시 《잘 익은 복숭아는 할아버지에게》라는 제목으로 《조선 로동당 력사 연구실》에서 모임을 가졌다. 강 충평 동무는 이번에도 다른 동무들과 함께 발표하게 되였다.

소년단 지도원 선생님과《연구실》책임자리 애자 동무는 강 충평 동무와 자주 만나 그를 도와 주었다. 그 후부터 《연구실》에는 가끔 강 충평 동무도 보였다.

모임이 있은 날 강 충평 동무는 두 번째로 앞에 나섰다. 그는 소년단 경례를 하고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동무들! 김 일성 원수님은 어렸을 때 동생을 극진히 사랑하셨습니다. 원수님은 어디 놀러 다닐 때면 늘 동생의 손목을 잡고 놀러 다니셨고 때로는 홀로 놀러가셨다가도 동생이 생각나서 집에 달려와 자는 동생의 얼굴을 디려다보군 하셨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또한 원수님은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들으셨습니다. 어렸을 때 잘 익은 복숭아는 따서 먼저 할아버지께 드렸습니다. 나는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들을 대신 어머니는 내 시중을 들어 주는 사람으로만 생각했습니다. 우리 분단에는 아직 나와 같이 말썽만 부리는 장 재문, 리 성남, 정 동규 기타 동무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원수님의 모범을 본 받아 이런 점을 꼭 고쳐야 하겠습니다》

그는 더듬 거리면서도 진심으로 말하였다.

김 일성 원수님의 혁명 활동을 연구하는 2분단 동무들

이 모임이 있은 후부터 강 충평 동무에게는 차츰 심한 장난은 나타나지 않게 되였다. 그러나 그는 항상 무언가 생각에 잠긴채 양지쪽에서 동무들이 노는 것을 물끄럼히 바라보군 하는 일이 많아졌다.

수업이 끝나면 그는 그전 동무들과 어울리지 않았고 혼자 집으로 갔다. 또 달라진 점은 이제는 그의 입에서 항상 튕겨 나오던 《이새끼 저새끼》하는 말도 뜸해진것이다.

그전 동무들은 그를 놀려댔다. 《얘 너 요즘 아주 모범 소년단원이 다 됐구나 거 훌륭한데…》

장난'군들이 이런 말을 할 때에 강 충평 동무는 《너 까불겠니?》 하고는 낯을 붉히며 성을 내군 하였다. 그리고 더는 말도 하지않고 가버렸다. 등 뒤에서 높은 웃음소리가 들렸다. 강 충평 동무는 그대로 말없이 걸어 갔다. 그러자 말성'군들은 차츰 강 충평 동무를 멀리하기 시작하였다.

강 충평 동무는 한 때는 버림을 받은 것 같은 생각도 들었지만 얼마 후부터는 오히려 마음이 편하고 학교갈 재미도 더 났다.

이것을 알아 차린 분단 열성자들은 곧 강 충평 동무를 분단의 따뜻한 품에 안아 주었다.

동상 앞에서의 맹세

2분단의 다음번 《연구실》발표 모임 제목은 《보다 참된 일을 위하여!》였다.

분단 동무들은 《혁명을 위하여》 1집에 있는 항일 빨찌산 지대장 박 길송 동지의 투쟁기를 서로 다투어 가며 필기하기 시작했다. 분단 열성자들은 소년단 생활에 잘 참가하지 않는 동무들부터 이 책을 빌려 줬다. 그리고 그들과 자주 만나서 도와 주었다.

1월 3일 날 모임에서는 열성자들과 많은 동무들이 토론에 참가했다. 강 충평 동무도 스스로 동무들 앞에 나섰다.

《동무들! 항일 애국 투사 박 길송 동지는 김 일성 원수님의 충실한 전사로 벌써 어렸을 때부터 조국을 찾는 싸움에 참가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는 어린 길송이가

강 동지에게서 받은 붉은 넥타이를 어떻게 소중히 여겼으며 빨찌산이 준 임무를 위하여, 조국을 찾기 위하여 얼마나 용감히 싸웠는가를 이야기했다. 그는 자기가 지난 날 학습을 게을리 했으며 소년단 규률을 지키지 않은 일들을 이야기하면서 지금 생각하면 얼굴이 뜨겁고 막 가슴이 답답하다고 하였다. 그는 동무들 앞에서 자기의 결함을 꼭 고쳐 보겠다고 다짐했다.

2분단 동무들의 《 연구 노트》에는 많은 것들이 적혀져갔다. 한 달에도 몇 번씩 발표 모임을 가지고 반들에서도 자기 반의 사정에 따라 제목을 알맞게 골랐다.

그리하여 그들은 서로 규률을 지키지 않는 일, 로동을 싫어하는 일, 자기만 생각하고 집단은 생각하지 않는 일들에 대하여 하나하나 타일러 가면서 서로 도와 고치기에 애썼다.

분단 위원장 홍 종완 동무와 열성자들은 강 충평 동무와 자주 같이 놀며 그를 친절히 대해 주었다.

강 충평 동무의 얼굴은 날이 갈수록 명랑해지고 그전과는 전연 달리 활기를 띄기 시작하였다.

그는 분단에서 주는 일이라면 무슨 일이고 선참 나섰다.

날이 갈수록 2분단은 새로운 《소문》을 낳기 시작하였다.

2분단은 이제는 어떤 일이건 끌찌는 하지않게 되였다. 결석생도 점점 적어졌다. 뿐만 아니라 파철 회수, 거름 줍기 등에서는 우수한 학생으로 강 충평의 이름도 자주 불리웠다.

지난 1월, 2반 모임에서는 반장을 선거해야 했다. 이때 뜻밖에 반장으로 추천된 강 충평 동무는 몹시 당황해 하며 어쩔바를 몰라했다. 그러나 반동무들은 진심으로 되는 박수로 강 충평 동무를 환영해 주었다.

그날 저녁이였다. 《연구실》 에서 마지막 불이 꺼지드니 적은 그림자 하나가 나와 수상님 동상 앞으로 다가 갔다. 그 앞에 가서 멈추어 섰던 그림자는 한 참만에 기세 좋게 소년단 경례를 부치고 홱돌아서 가버렸다. 그는 선거 받은 2 반 반장 강 충평 동무였던것이다.

× ×

지난 3월, 2분단은 학교에서 모범적으로 규률을 잘 지킨데 대해서와 소제 당번을 없애고 청소를 잘한 것으로 《위생 문화 모범 기'발》을 탔다.

그들은 지금 모두가 우등 최우등이 될 것을 목표로 열심히 배우며 일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교마 5개년 계획》활동에서 다른 분단들 보다 토끼 2만 5천장을 더 생산하여 토끼사를 지을 것을 결의하고 신나게 일하고 있다.

이리하여 2분단은 분단의 영예를 회복하고 이번에는 새로운 모범 분단으로 소문나기 시작했다.

어린 시절의 원수님 동상 주위를 그들은 항상 깨끗이 청소한다.

원 도 홍 글

홍 관 순 그림

평양에서 기차를 타고 북쪽으로 조금 가느라면 철'길 옆에 있는 조그마한 마을을 지나게 됩니다. 그 마을 맨끝에 철'길을 등지고 아담한 기와집이 있는데 기차에 앉아서도 뒤'뜰 울타리에 박혀 있는 나무 말뚝들을 똑똑히 내려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까지만 하여도 그 나무 말뚝들 한 가운데에 허리 구부러진 쇠말뚝 하나가 꽂혀 있었습니다. 그것은 정전 직후 집 주인 아주머니가 울타리를 만들면서 철'길 옆에 굴러 있는 쇠'대를 주어다 꽂은 것이였습니다.

나무 말뚝들은 이 허리 굽은 쇠말뚝을 《꼬부랑쇠 서방》이라고 불렀습니다. 《여보 꼬부랑쇠 서방, 자넨 어쩌다가 그렇게 허리가 구부러졌나?》

《말 말게, 그놈 미국놈 때문에 이런 신세가 됐네. 나도 한땐 이 앞으로 지나다니는 기차 차판과 같은 한 차판의 가름대가 돼서 우리 나라에 필요한 짐들을 나르는 보람찬 일들을 하댔네. 그런데 그 흉악한 미국놈들의 폭격을 맞고 같이 일하던 동무들도 다 잃고 이렇게 허리까지 구부러져서 이런데서 수모를 받고 있지 않나》.

꼬부랑쇠 서방은 늘 전쟁 전에 하던 일을 생각하고 자기의 지금의 신세를 한탄하군 하였습니다. 그는 아침 저녁으로 주인 집 아주머니가 버리는 더러운 가시'물 벼락을 맞을 때마다 자기를 이런 신세에 빠뜨리게 한 미국놈들을 미워하며 안타까이 울기까지 하였습니다. 바로 부엌 뒤'문 앞 구정물 버리는 곳에 서 있는 꼬부랑쇠 서방은 아침 저녁으로 버리는 구정물 벼락을 맞으며 하루하루를 녹쓸어 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 꼬부랑쇠 서방에게 더 속상한 일이 생기였습니다. 그 날도 여니 날과 같이 아침 설거질을 하고 버리는 구정물 벼락을 맞고 속이 클클해서 있는데 그의 앞을 지나 가는 기차에서

《야 야, 너 가름'대 아니냐?》

하고 누가 자기의 진짜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꼬부랑쇠 서방은

(누가 내 본 이름을 부를가?)

하고 정신을 번쩍 가다듬어 가지고 뒤를 돌아 보았습니다.

《야 야, 넌 날 몰라 보는 모양이구나, 난 너하고 같은 차판에서 일하던 기둥쇠

야》

《뭐? 네가?…》

끄부랑쇠 서방은 기차를 타고 가는 아주 훌륭한 방직 기계를 보고 놀랐습니다.

《그래 난 지금 방직 기계가 되여 평양 방직 공장으로 천을 짜러 가는 길이다. 그런데 넌 어떻게 돼서 아직 이런데서 썩고 있느냐?》

끄부랑쇠 서방은 무어라고 대답할 말이 없었습니다. 도리여 그는 기둥쇠가 어떻게 되여서 그렇게 훌륭한 기계가 되였는지 묻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또 미국놈들에게 폭격을 맞은 후 같이 일하던 딴 동무들은 다 어떻게 되였는지 기둥쇠에게 물어 보려고 입을 여는데 새 기계가 된 기둥쇠를 실은 기차는 벌써 멀리 달려 가고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끄부랑쇠 서방은 알고 싶은 안타까운 마음을 안고 멀리 달려 가는 기차 꽁무니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후부터 끄부랑쇠 서방은 더욱 궁금해 하였습니다. 그는 혹시 또 자기와 같이 일하던 동무가 지나가지나 않나 해서 기차가 지나갈 때마다 유심히 살펴 보았습니다.

기차에는 자기와 같은 강철로 만든 숫한 기계들이 실려 갔으나 자기가 아는 동무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끄부랑쇠 서방은 어떻게 하면 기둥쇠와 같이 새 기계가 될 수 있을가 하는 안타까운 생각에 밤이나 낮이나 지나 가는 기차들을 살피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커다란 양수기가 되여 가는 자기 동무를 알아내였습니다.

《야 야, 너 전에 기차판에서 일하던 쇠바퀴 아니야?》

양수기는 철'길 옆에 말뚝으로 서 있는 끄부랑쇠를 보고

《아니 넌 아직 어떻게 그런데 서 있니? 우린 너도 어느 공장에 가서 훌륭한 기계가 됐으리라고 믿고 있었는데…》

《그런데 난 너희들처럼 어떻게 그렇게 훌륭한 기계가 되는지 방법을 몰라서 아직도 이런데서 썩고 있다. 야 야, 멀리 가기 전에 그 방법을 좀 가르쳐 주고 가렴》

끄부랑쇠 서방은 기차를 붙들듯이 안타까이 쇠바퀴에게 물었습니다.

《방법이라야 딴 게 없단다. 그 때 폭격을 맞고 철'길 아래에 굴러 떨어져 있는데 사람들이 우리를 끌어 내다가 공장에 가져 가더니 이렇게 훌륭한 기계를 만들어 주드구나…》

그리고도 양수기는 큰 입을 더 크게 벌리고 뭐라고 말을 했는데 거리가 너무 멀어져서 말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후도 끄부랑쇠 서방은 반들거리는 새 뜨락또르, 자동차, 부르도젤, 엑쓰까와똘, 선반기, 변압기가 되여 기차에 실려 가는 자기들의 옛 동무들을 만나 보았습니다. 그들은 모두 공장과 도시의 건설을 위해 또 농촌의 기계화, 수리화, 전기화를 위해 공장에서 도시와 농촌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철과 기계는 공업의 왕이다!》

지나 가는 화차 벽에 붙어 있는 구호와 같이 그들은 그야말로 왕이 되여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쟁 전에 같이 일하던 동무들 가운데서 자기 혼자만이 아침 저녁으로 얼굴에 구정물 벼락을 맞고 시뻘겋게 녹이 쓸어서 땅에 박혀 있는 것을 생각하니 안타깝기가 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나란히 서 있는 나무 말뚝들이 동정하느라고 하는 말이기는 하지만

《야 넌 몸이 끄부라지구 녹이 쓸어서 그런가보구나》

하고 말하는데는 더욱 기가 막히였습니다.

이렇게 안타까와 하고 있는 어느 날

《아주머니 파고철 모으려 왔습니다.》

하고 붉은 넥타이를 맨 소년 한 무리가 끄부랑쇠 서방이 있는 집 뒤'뜰안으로 돌아 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나무 말뚝 한 가운데에 박혀 있는 끄부랑쇠를 보더니

《야 이것 멋있는 것 있다!》

하고 마치 오랜 옛 친구나 만난듯이 끄부랑쇠 서방한테로 달려 오는 것이였습니다. 끄부랑쇠 서방은 그들이 그를 당장 뽑아 가지고 그의 동무들과 같은 그런 새 기계를 만들어 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끄부랑쇠 서방을 돌아 보기만 하고 그냥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때 끄부랑쇠 서방은 기운 없이 고개를 푹 떨구었습니다. 그는 눈물을 폭포처럼 흘리였습니다.

《야 너무 락심 말아. 이자 그애들이 널 보고 막 기뻐 날뛰는 걸 보니까 그냥 내버릴 것 같진 않더라》

끄부랑쇠 서방이 안타까와 우는 것을 보고 옆에 서 있는 나무 말뚝들이 위로를 해 주는 것이였습니다.

나무 말뚝들의 말과 같이 붉은 넥타이를 맨 소년들은 끄부랑쇠 서방을 그냥 두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새로 깎은 나무 말뚝 하나를 메고 와서

《아주머니 이 나무 말뚝을 꽂고 저 쇠말뚝은 뽑아 가두 좋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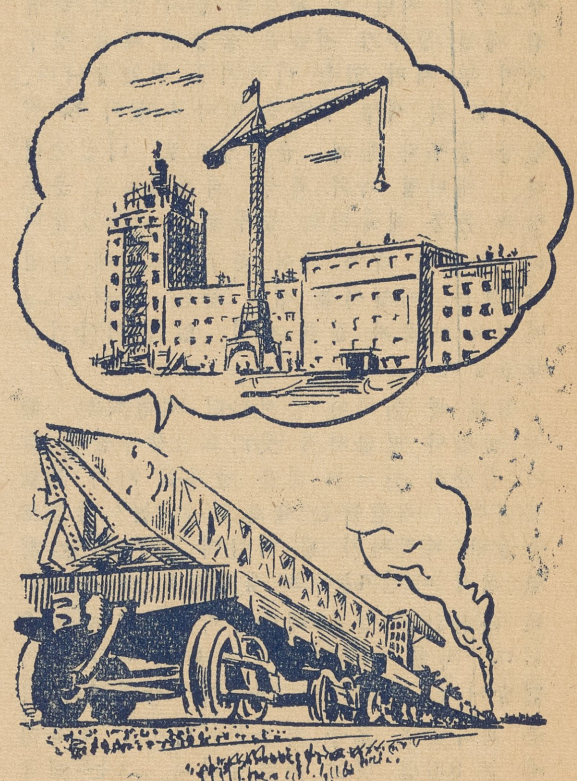
하고 주인 아주머니에게 묻는 것이였습니다.

《좋구 말구 내가 미쳐 생각을 못해서 그걸 그냥 내버려 두었구나, 어서 가져다가 좋은 기계를 만들도록 해라》

소년단원들은 끄부랑쇠 서방을 뽑아 메고

《야 이렇게 무거운 걸 뒤울안에다 묵여 두었었구나》

하고 매우 기뻐하였습니다.

그후 끄부랑쇠 서방은 소년단원들이 모아 온 파고철과 같이 기차를 타고 려행을 하게 되였습니다. 그는 먼저 강선 제강소에 실려 가서 선철과 같이 전기로 목욕을 하고 새로운 산형강이 되였습니다. 그리고 또 기차를 타고 려행을 떠났습니다. 그 때까지 그는 앞으로 무엇이 될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락원 기계 공장에 도착한 그는 그들이 기중기가 된다는 말을 듣고 매우 기뻐했습니다. 더우기 산형강이 된 그들은 기중기가 되여 기차에 실릴 때 평양에 가서 소년단원들의 궁전인 아동 궁전을 짓는다는 말을 듣고 너무 기뻐서 춤을 추었답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를 새 기계가 되게끔 해 준 소년단원들을 위해서 그들의 궁전을 아주 튼튼하고 빨리 그리고 멋있게 지어 주리라고 굳게 마음 먹었습니다.

재열이의 체력단련

얼마전 영홍 고급중학교 대를 찾아 간 나는 이 학교 대대위원장 전 태수 동무로부터 지난 날 체육을 몹시 싫어 하던 김 재열 동무가 지금은 훌륭한 체육 선수 까지 된 재미 있는 이야기를 들였습니다.

나는 김 재열 동무를 만나고 싶어 대위원장 동무와 함께 운동장으로 나왔습니다. 때마침 과외 체육 시간이여서 운동장은 온통 체육하는 동무들로 들끓었습니다. 동무들 속에 끼여 배구 치기에 여념이 없는 재열이를 쉽게 찾은 우리는 그에게서 다음과 같은 재미 있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원래 책 읽기만 즐겨하던 재열이는 항상 생활이 명랑하지 못하고 동무들과 같이 휩쓸려 뛰노는 것을 달가워 하지 않았습니다. 재열이는 속으로 《나는 앞으로 훌륭한 과학자가 될 터인데 공부나 잘 하면 될것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몸을 튼튼히 단련하는 일은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사실 재열이는 체육을 제일 싫어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매 학기마다 다른 과목들은 모두 최우등이면서도 체육만은 늘 3점을 맞군 하였습니다. 그는 체육 시간이면 언제나 달리기에서 끝찌만 했고 뽈을 칠 때면 뚱뚱한 몸'집이 말을 듣지 않아 분단 동무들의 웃음'거리가 되군하였습니다. 이렇게 되자 재열이는 체육이 더욱 싫어졌고 체육 시간이면 의례히 무슨 핑게를 대고 빠질 생각만 했습니다. 또 재열이는 자주 앓았는데 조금만 몸이 아파도 지레겁을 먹고 자리에 눕군 하였습니다.

작년 3월 어느 날이였습니다. 분단에서는 체력 검정 준비를 위한 모임을 가지였습니다. 분단 동무들은 재열이 때문에 몹시 근심했습니다. 재열이만 합격한다면 이 분단에서는 모두 합격할 수 있기 때문이였습니다. 모임에서는 의논 끝에 체육 선수인 해원이에게 재열이가 체력 검정에 꼭 합격하도록 도와 줄 것을 위임했습니다. 해원이는 덮어 놓고 자기처럼 하라고만 했습니다. 재열이는 해원이가 하는 것을 보면 꼭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할려니까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때마다 《얘 남자가 고것도 못해, 정말 넌 곰 같이 둔한 애구나》하며 놀려까지 주었습니다. 성과 없이 몇 날이 지났습니다. 해원이는 분단에서 받은 위임도 잊어버리고 《체육은 밥 먹듯 쉬운 것은 아니야》라고 뽐만 내고 자기 할 일만 했습니다. 재열이도 《체육은 타고 난 재주를 가진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지 나 같은건 암만 해도 안될거야…》 하면서 열성조차 내지 않았습니다. 분단에서는 다시 모임을 열고 해원이의 잘못을 깨우쳐 주는 한편 재열이에 대해서는 대위원회와 학교 체육단의 방조를 받기로 했습니다. 대위원장과 체육단 위원장인 허 문섭 동무는 재열이를 자주 찾아 와서 체육을 하는 목적은 한 개인이나 선수들이 제 취미와 놀음'거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주의 건설에 더 잘 이바지 하며 원쑤들로 부터 우리 조국을 굳건히 보위하는데 있다는 것을 이야기 해 주었습니다. 《당과 원수님께 충실한 일'군이 되려면 우선 튼튼한 몸을 길러야 해》 《명수나 선수는 타고 난 재주가 있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련습한 때문이야》 《너보다 더 어린 동무들도 다 하는데 너라고 못할 것이 뭐 있니》 《네가 자주 앓는 것도 몸을 튼튼히 단련시키지 않았기 때문이야》 등등 분단 열성자들은 제일처럼 재열이를 도와 주었습니다.

한편 분단에서는 반별로 여러가지 시합을 할 때나 달리기를 할 때는 의례히 재열이를 참가시켰고 뜀'줄도 만들어 주고 등반봉 오르기, 철봉, 수류탄 던지기 같은 운동은 기본 동작부터 차근차근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와 같은 친절한 방조는 재열이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였습니다. 《그렇다. 나 라고 못할 것은 없다. 나는 혁명 투사들의 굴할줄 모르는 투지를 배우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한 재열이는 그 날부터 솔선해서 운동장으로 나와 련습했습니다. 그러나 원래 체육을 싫어 한데다 몸까지 둔하고 보니 처음부터 제대로 될리 없었습니다. 그는 그때마다 락심하지 않고 짬짬이 철봉에도 매달려 보고 남몰래 등반봉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학교에 오갈 때는 달리기 련습도 했고 도랑이 있을 때는 넓이 뛰기 련습을 하군 하였습니다. 또한 그는 길'가에 돌맹이들이 있으면 그것으로 수류탄 던지기 련습도 하였습니다. 이러는 사이에 재열이는 차츰 생활도 명랑해졌고 앓아 눕는 일도 없어졌습니다. 재열이의 체육 성적은 눈에 띠울 정도로 나날이 높아 갔습니다. 체육단 위원회는 재열이의 열성을 더욱 높여 주는 한편 계단별로 그의 수준을 높여 주었습니다. 재열이는 더욱 체육에 취미를 부치게 되였고 더 열심히 련습했습니다.

체력 검정의 날이 닥쳐 왔습니다. 드디어 재열이의 꾸준한 노력은 보람이 있어 그는 전 종목에 걸쳐 인민 체력 검정 소년급에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이 날 분단 동무들은 자기 일처럼 기뻐하며 재열이를 축하하였습니다. 이리하여 재열이는 매일처럼 자기 몸을 튼튼히 단련하는 데 습관되여 갔고 이제는 체육 선수까지 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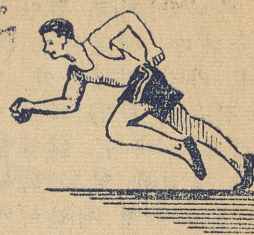
이 학교 대에서는 재열이 같은 동무가 한 두 사람이 아니였습니다. 8분단 녀 동무들은 수영을 할 줄 몰랐고 또한 7분단 동무들은 수류탄 던지기에서 뒤떨어졌습니다. 그 때마다 대위원회와 체육단 위원회는 이에 알맞는 방조를 주어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렇듯 대위원회는 학생들 속에 깊이 들어 가서 로력과 조국 보위를 위하여 모두가 체력 단련에 힘쓰도록 세밀한 계획을 세워 지도했습니다. 결과 지난번 1958년도 인민 체력 검정에서 대상자 711명이 한 사람도 빠짐 없이 전 종목에 합격하는 놀라운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로 해서 이 학교 대는 이번까지 세 차례나 련거퍼 전국적으로 2등의 영예를 지니게 되였습니다. 이것이 재열이가 나에게 들려 준 이야기의 전부입니다. 재열이가 이야기를 마쳤을 때 마침 배구장에서는 아이들이 재열이를 불렀습니다. 재열이는 인사하기가 바쁘게 배구장으로 뛰여 갔습니다.

재열이는 비록 몸집은 뚱뚱하나 가볍게 뽈을 받아 넘기는 재주든가 억센 팔로 내려 치는 강한 뽈은 상당한 선수라는 인상을 주었습니다. 그의 넓직한 앞가슴에는 소년단 휘장과 나란히 달린 인민 체력 검정 소년급 휘장이 봄별에 유난히도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영홍 고급 중 학교 대에서—

본사 기자 권 기준

스포츠명수가 되기까지

공화국 스포츠 명수 김 설 기

나는 5년전만 해도 붉은 넥타이를 맨 소년단원이 였습니다. 때문에 나는 길'거리에서 소년단원들을 만날 때마다 항상 옛동무를 만나는 것만 같습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나의 적은 경험이나마 도움이 될가 하여 이 글을 《소년단》 잡지 편집부에 보냅니다.

나는 어려서부터 남달리 체육을 즐겨 했습니다. 학과가 끝나면 달리기, 뽈차기 하는 것이 가장 즐거운 일의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그날 배운 것은 그날로 다 복습을 해 놓고야 체육을 시작하군 하였습니다. 이렇게 되자 나는 학습에서 최우등이였을 뿐만 아니라 항상 몸도 튼튼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지껏 병으로 앓아 누워 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나는 어려운 전쟁 시기에도 항상 맡겨진 일을 훌륭히 해낼 수 있었습니다.

당시 렵현 인민 학교 대 대위원장이였던 나는 동무들과 함께 전선 원호 사업, 후방 가족 원호 사업, 전선에 동원된 형님 누나들을 대신하여 부모들의 일'손을 돕는 일들로 몹시 바빴습니다. 그러나 이 때도 몸을 단련시키는 일은 잊지 않았습니다. 그후에도 꾸준히 체력 단련에 노력했습니다. 나는 1956년 6월 소년단 창립 10주년 경축 화평군 체육 대회에 참가하여 처음 달리기에서 1등을 했습니다. 이것이 나의 선수 생활의 첫 출발이 였습니다. 그후 나는 도와 중앙에서 진행되는 체육 대회에 여러번 참가하였는데 그 때마다 비교적 성적이 좋았습니다. 그러나 한때 이 적은 성과에 만족하고 련습과 체력 단련을 게을리 한 결과 8. 15 해방 12주년 전국 체육 대회에서는 완전히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이에 실망한 나는 얼마간 체육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때 나는 초중을 졸업하게 되였습니다. 나는 당의 부름따라 벅찬 로력 현장으로 진출하였습니다. 그때 현장 일은 내 나이에 비해 좀 어려운 일이였습니다. 그래도 능히 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어릴적부터 몸을 튼튼히 단련 했기 때문이였다고 생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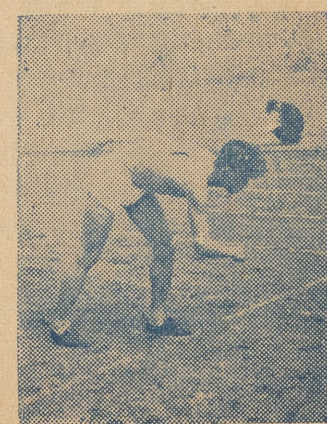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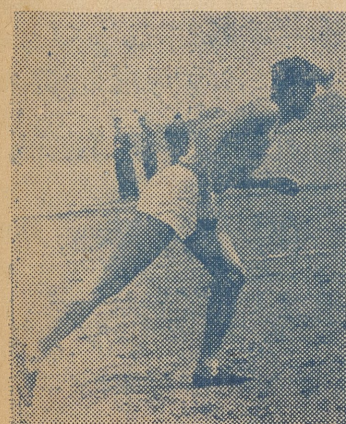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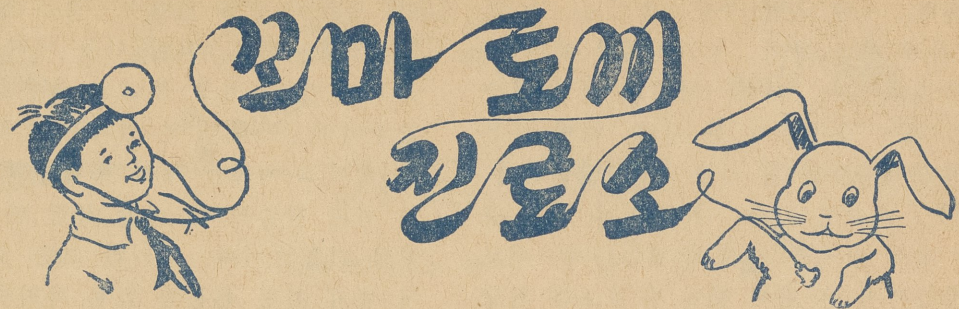
어느날 내가 일하고 있는 화평 림산 사업소 당 위원장 동지와 민청 위원장 동지가 찾아 와서 꾸준한 련습과 체력 단련만이 훌륭한 성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로동 속에서 단련된 우수한 체육가가 되기 위하여 지금부터 꾸준히 련습하라고 간곡히 이야기 하여 주었습니다. 이 말은 나를 무한히 고무하여 주었고 새로운 용기를 가지게 하였습니다. 나는 그날부터 새롭게 결심을 다지고 열심히 련습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나의 로동 생활은 비록 짧았으나 참으로 보람찬 나날이 였습니다. 이 기간 자랑스러운 로동 계급 속에서 생활 하면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후 나는 교통성 체육단으로 오게 되였습니다. 이곳에 오면서부터 발전된 쏘베트 체육 과학과 오랜 선수들의 경험을 열심히 배웠습니다.

한편 몸을 고르게 발전 시키기 위하여 인민 체력 검정 종목들을 련습 하였습니다. 그리고 육체 단련과 참을성을 기르기 위한 보조 운동(뜀줄, 력기, 아령, 철봉, 평행봉, 장거리 등)을 하는 한편 속도 훈련, 기술 훈련(무릎 올리기, 팔 젓기, 자세 바로 잡기 등)을 배합 해서 진행 하였습니다. 나는 아직도 어린 선수여서 다른 동무들이 한 시간 하면 나는 세 시간 네 시간 할 것을 결심 했습니다.

나는 지도원이 준 과제를 다 하지 못하는 날은 식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방안에서 온 몸이 땀에 폭 젖도록 련습한 적도 있었고 길 가다 앞 뒤를 살펴보고 사람이 없으면 팔도 저어 보고 무릎 높이는 련습도 하였습니다. 이 때 누가 보았으면 아마 미친 사람이라고 하였을 것입니다. 어느 때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자다가 눈을 떠 보니 밖이 환 했습니다. 나는 곧 운동복으로 갈아 입고 매일처럼 달리는 륜환선 거리를 뛰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날이 훤해 지고 방송이 나와야 할 터인데 거리는 고요하기만 하였습니다. 좀 이상 했으나 인차 날이 밝겠거니 생각하고 나는 인기척 없는 거리를 그냥 달렸습니다. 이 날은 끝내 방송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돌아 와서 시계를 보니 그 때야 세시가 좀 지났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런 일은 눈이 왔을 때나 달밤일 때 가끔 있었습니다.

또 우리 체육단이 월동 준비를 위해서 성능 탄광에 갔든 일이 있었습니다. 하루 일을 끝낸 우리들은 몹시 피곤하였습니다. 당시 련습을 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였습니다. 그러나 나는 어려운 것도 참고 달리기, 철봉 등 보조 운동을 계속하였습니다. 이렇게 한 결과는 오히려 피곤이 풀리고 새로운 힘이 솟았습니다. 나는 그 때의 작업에서 정말 놀랄 만치 많은 일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을 통하여 다시 한번 튼튼한 몸은 사회주의 건설에서 귀중한 보배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나의 이와 같은 노력은 작년 9월에 있은 전국 선수권 대회에서 1,500메터 공화국 새 기록을 낼수 있게 하였습니다. 지난 2월 5일 나는 영예스러운 공화국 스포츠 명수 칭호를 받았습니다.

나는 지금 이 분에 넘치는 영예에 보답하기 위하여 나의 기술을 금년 중으로 아세아 수준에 도달하게 하며 가까운 장래에는 세계 수준까지 끌어 올릴 결심으로 더 열심히 훈련하고 있습니다. 소년단원 동무들! 체력 검정에 있는 종목들은 우리 몸을 고르게 발전 시키며 튼튼하게 하는 기본입니다. 모두 다 체력 검정에 합격하도록 노력하십시요. 그리하여 몸을 튼튼히 단련하여 로력과 조국 보위를 위하여 훌륭히 준비 하십시요. 꾸준히 참을성 있게 노력 하십시요. 그러면 누구나 다 스포츠 명수가 될 수 있습니다. 명수는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평양 23중 학교 대 《꼬마 토끼 진료소》 소장입니다.

지금 우리 학교 대에서는 3월과 4월의 토끼 사양 계획 실행 월간에 들어 서면서 전체 소년단원들이 동원되여 열심히 토끼들을 기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학교 대 《꼬마 토끼 목축장》에서는 2,300마리가 넘는 토끼를 기르고 있습니다. 이 많은 토끼를 기르기란 그리 쉬운 일은 아니였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많은 토끼들이 죽었습니다. 그것은 우리들이 토끼가 흔히 앓는 병이 무엇이며 그의 치료 방법은 어떤 것인가를 잘 모르고 있었기 때문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토끼들이 앓기만 하면 어쩔 바를 몰라 멀리 떨어진 가축 병원을 찾아 가든가 그렇지 않으면 마을 수의사 선생님을 찾아 가군 하였습니다.

이럴 때마따 우리들은 참으로 불편함을 느꼈고 어떻게 하면 우리 손으로도 병 치료를 할 수 있을가 하고 생각하였습니다.

그후 우리들은 의논한 끝에 동물과 선생님과 대 위원회의 도움을 받아 《꼬마 토끼 진료소》를 만들기로 하였습니다.

우리들은 우선 학교에서 배운 지식과 지난날 토끼 사육에서 얻은 경험을 살려 가며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은 마을 수의사 선생님을 찾아가서 토끼의 병 종류, 그의 치료 방법, 병을 예방하는 방법들을 배웠습니다.

우리들의 열성에 감탄하신 마을 수의사 선생님은 더 잘 배워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후에는 많은 약과 치료하는 기구까지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렇게 치료 방법과 예방법을 배우는 한편 우리들은 입원실 (격리실), 수술실, 약국까지 갖춘 훌륭한 진료소를 만들었습니다.

우리《꼬마 토끼 진료소》가 생긴 것은 지난 1월이였습니다. 이때부터 한 마리의 토끼도 병으로 죽는 일이란 없게 되였습니다.

그 리유는 간단합니다. 그것은 진료소가 토끼사에 대한 청소 소독과 그리고 토끼들에 대한 치료 예방 사업을 잘 했기 때문이였습니다.

나는 이제 우리 진료소가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하여 몇 가지 경험을 말하려고 합니다.

★ 청소 소독 사업에서

청소는 하루에 두번씩 하는데 그중 한 번은 토끼집에 깔아 준 깔개를 모두 끌어 내여 해'볕에 잘 말리우고 깨끗이한 다음에 다시 넣어 줍니다. 진료소에서 일하는 동무들은 하루 한 번 위생 검열을 하고 잘 되지 않은 곳은 몇번이고 다시 하도록 합니다. 또 소독은 일주일에 두번 하는데 1~3%의 《호루마링수》, 《크레놀》, 《석탄산 수》등으로 토끼 우리 안팎과 토끼집, 그 안에 있는 깔개까지 철저히 소독합니다.

갓 낳은 새끼가 있는 곳은 소독약을 뿌리지 않거나 될 수 있는대로 연하게 타서 뿌리였습니다. 여기서 우리들이 특히 주의한 것은 전염병을 앓던 토끼가 깔고 있던 깔개를 처리하는 일이였습니다. 우리들은 이런 때에는 깔개를 불태우거나 그렇지 않으면 거름 더미로 가져갔습니다.

★ 방역 예방 사업에서

우리 《꼬마 토끼 진료소》에서는 3~5일에 한번씩 매개 토끼들을 진찰하고 조곰이라도 이상한 점이 있으면 곧 입원실로 옮겨다가 치료하였습니다. 한편 건강한 토끼들은 매일 30분 정도 해'별 바른 방목장에 내 놓고 적당한 운동을 시킵니다. 또한 우리들은 《콕찌줌》, 《위장염》 같은 병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료에 흙이 섞이지 않았는가, 너무 차거나 뜨겁지 않는가, 또는 변질한 것이 아닌가 등등 사료를 잘 검사한 다음에야 주군 합니다. 때로는 설사를 미연에 방지하는 약으로 솔'잎을 사료에 섞어 먹이는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끔 부주의로 병에 걸려 진료소에 들어 오는 토끼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진료소에서는 정확한 진찰을 한 다음에 이에 알맞는 약을 써서 고치고 있습니다.

★치료사업에서

동무들은 《소년 신문》을 통하여 토끼들이 흔히 앓는 병이 무엇이며 어떻게 고치는가를 잘 알고 있으리라고 믿기 때문에 여기에는 주로 우리가 새로운 방법으로 치료하고 있는 몇 가지 방법만 들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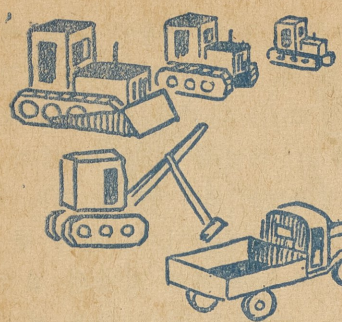
얼마전 83호실 토끼가 《콕찌줌》에 걸렸을 때였습니다. 우리는 우유에다 《옥도정기》 1%~3%를 타서 한번에 2g 정도로 하루 세 번씩 일주일 동안 계속 먹였습니다. 그랬더니 앓든 토끼는 나았습니다. 또 37호실 토끼가 《젖 앓이》에 걸렸을 때에 우리는 종처난 곳을 소독한 칼로 째고 《백 고약》을 발라 준 다음에 붕대로 감아 주었드니 이것도 곧 나았습니다. 40호실 토끼가 설사를 하였을 때도 우리는 준비하여 둔 《지사정》, 《다이야졸 정》, 《구아니딘 정》 등을 먹였습니다. 이때 큰 토끼는 반 알, 작은 토끼는 절반의 절반을 먹이였습니다. 또 쑥을 끓인 물을 먹이여도 나았습니다.

그러나 한 번은 애를 태운 일이 있었습니다. 182호실 토끼가 앓았는데 아무리 진찰해 보아도 무슨 병인지 알아 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 우리들은 수의사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 토끼의 병이 《카다루성 폐염》이라는 것을 알게 되였습니다. 우리는 곧 《꼬마 토끼 진료소》에 있는 《페니시링》을 여러번 나누어 다리에다 노아 주었습니다.

이 밖에도 우리는 《풍》에는 《구명수》를 먹였고 《매독》에는 《노바루 세놀》 주사나 《오사루솔》등을 먹이기도 하여 한 마리의 토끼도 죽이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적은 경험이나마 가지게 된 것은 우리가 학습과 생산을 옳게 결합하여 배운 지식을 더욱 공고히 한 결과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우리들은 금년 중으로 10만 마리의 토끼를 기르기 위하여 《꼬마 토끼 진료소》의 역할을 더욱 높이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평양 23중 학교 대 최 수용

조 화 석

동무들! 지금 우리 나라 로동자 아저씨들은 천리마를 탄 기세로 많고 새로운 훌륭한 기계들을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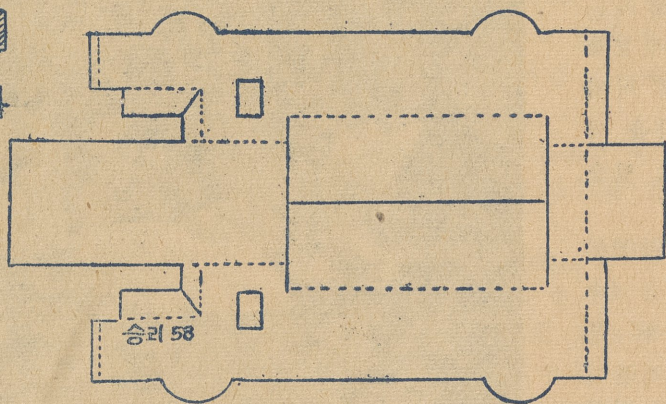
그럼 우리들은 우리 나라 로동자 아저씨들이 만든 자동차, 뜨락또르, 엑쓰까와또르등을 종이 공작으로 만들어 봅시다.

화물 자동차 《승리 58호》

화물 자동차 《승리 58호》를 만들어 봅시다. 먼저 도면을 그립시다. 그 다음 도면에 자기가 좋아하는 색을 칠 합시다.

인제는 갓을 베고 실선을 긁은 다음 점선을 꺾기만 하면 멋진 화물 자동차로 됩니다.

이 도면으로 이와 모양이 비슷하게 생긴 여러가지 크기의 화물 자동차, 짐차, 식료품 운반 자동차들도 만들 수 있습니다.

뜨락또르, 불도젤, 견인차

밭 가는 뜨락또르, 흙을 미는 불도젤, 끄잡아 가기나 기타에 쓰는 견인차를 만들어 봅시다.

이 세가지는 그 모양이 비슷하기 때문에 몇가지 부속품들만 더 만들면 세가지를 다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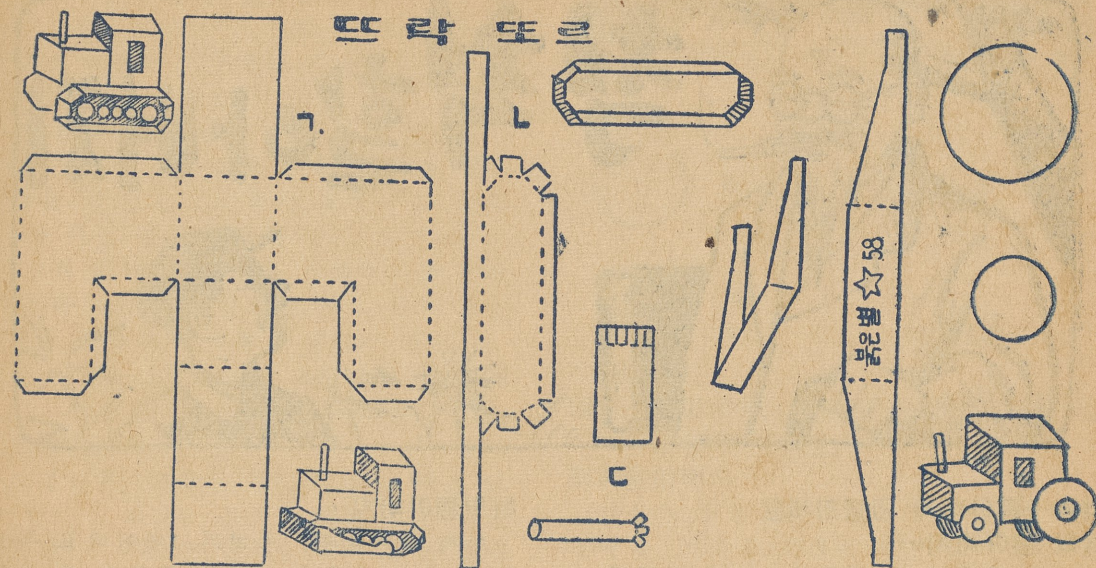
먼저 다음에 그린 도면을 잘 연구해 봅시다. 세가지에 같이 쓸수 있는 동체(몸통이)가 있지요? 그러면 거기다 무한궤도(바퀴), 불도젤의 앞 밀대, 견인차의 둥그런 바퀴만 더 만들어 붙이면 세가지중 어느 기계든 만들수 있습니다.

여기 그런 도면보다 더 크게 만들어 봅시다. 크게 만들거나 작게 만들때는 반드시 방안지(바둑판 모양의 줄이간 용지)를 그리고 정확하게 그 안에 원도의 비례를 맞추어 그리면 됩니다.

이 도면에서 (ㄱ) (ㄴ) (ㄷ)는 밭가는 뜨락또르의 기계 구조인데 (ㄱ)은 동체 (ㄴ)은 무한궤도(바퀴) (ㄷ)은 연통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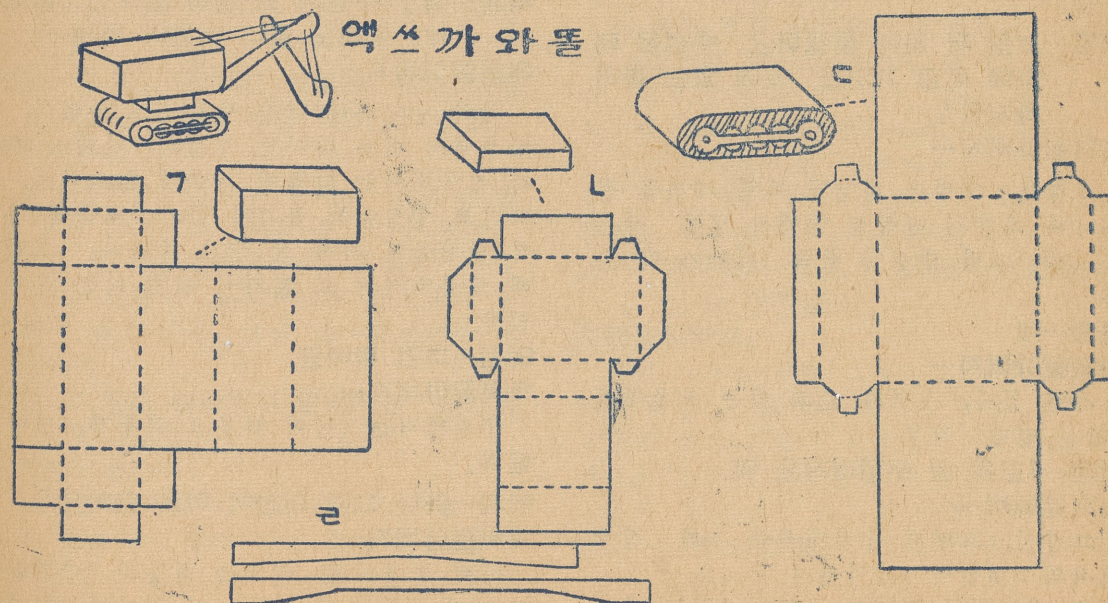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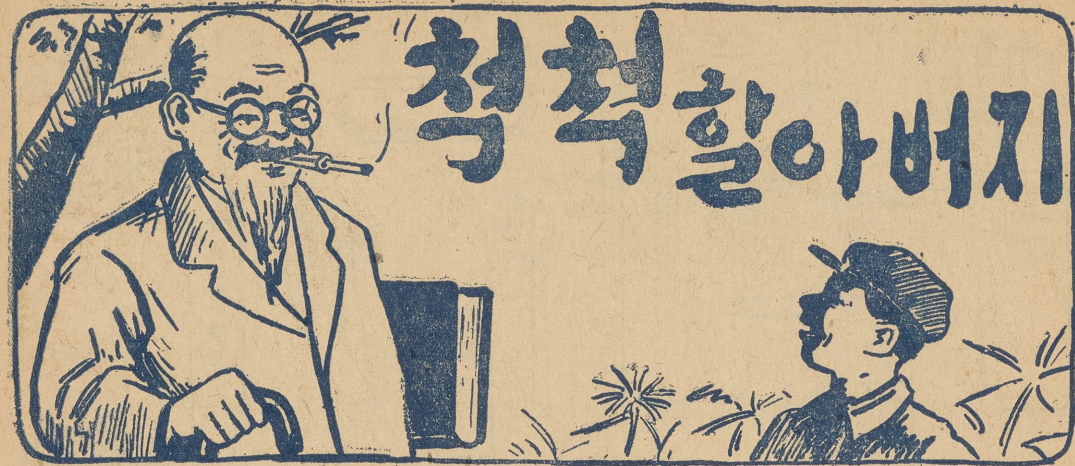
(ㄱ)도면(동체)에서 이 비례대로하지 않으면 서로 잘 맞지 않으니 정확하게 해야 합니다.

도면대로 베낸 다음 조립하고 무한궤도를 그려 넣고 색칠을 곱게하면 훌륭한 뜨락도르, 불도젤, 견인차로 됩니다.

엑쓰까와똘《천리마호》

《천리마호》 엑쓰까와또르는 어떻게 만들가요? 이것은 먼저 것 보다 좀 힘듭니다.

다음에 그린 도면을 봅시다. (ㄱ)은 동체 (ㄴ)은 회전대 (ㄷ)은 무한궤도 (ㄹ)은 흙손입니다. 도면을 그릴 때 치수는 형편에 따라 늘구거나 주려도 좋습니다.

도면에 따라 베고 조립한 다음 곱게 색칠 합니다.

동무들! 두두러진 색으로 《천리마호》라고 써 넣읍시다.

익환…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척척 할아버지…

오냐 너희들 또 왔구나, 그래 이번에도 봄철에 대한 문제들을 가지고 왔니?

익환…아니야요. 이번엔 태양계의 별들에 대하여 알려고 왔어요.

척척 할아버지…

오라, 이제 머지않은 우주 려행의 날을 앞두고 미리부터 떠날 차비를 하려는구나

익환…그럼요, 그런데 정말 태양계에 대한 문제도 대답해 줄 수 있나요?

척척 할아버지…

무엇이든 물어보렴, 척척 대답하지 않으리.

익환…그럼 저 하나 묻겠어요 수성은 태양에 제일 가까운 곳에 있는 별이라지요?

척척할아버지…

그렇다. 수성은 태양에 제일 가까울 뿐 아니라 태양의 행성들 중에서 제일 작은 별이다. 그럼 수성에 대해 이야기 해 줄가…

익환…네

척척할아버지…

가만 있자,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에서 1년은 몇달이지?

익환…1년은 열 두달이지요 뭐.

척척할아버지…

그렇지, 그런데 수성에서는 우리 지구에서의 3개월이 1년이란다.

익환…3개월이 어떻게 1년이 되나요?

척척할아버지…

이제 들어봐라, 우리가 1년이라고 부르는 기간은 지구가 태양의 주위를 한 바퀴 도는 기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겠니, 그런데 수성은 3개월 동안에 태양의 주위를 한 바퀴 돈단다. 그러니까 수성에서의 1년은 우리 지구에서의 3개월에 해당한단다.

익환…할아버지 그게 정말이야요.

척척할아버지…

정말 아니구, 만일 너희들이 수성에서 산다고 치면 지구에서 한 살 먹는 동안에 그곳에서는 네살이나 먹게 되지…

익환…야! 수성에 가 살아 봤으면 좋겠네, 우리도 빨리 어른이 되게…

척척할아버지…

허허… 그러나 너무 서둘 필요는 없어, 수성에서 먹은 나이는 수성의 나이지 우리 지구에서는 그렇게 쳐주지 않으니깐, 그리고 수성에는 공기가 없기 때문에 아직 사람들이 가서 살 수가 없단다. 그런데 수성에서는 또 한가지 재미 나는 일이 있어.

익환…그건 뭐얘요.

척척할아버지…

수성에서는 1년이 하루고 하루가 1년이란다.

익환…아니 그런 계산이 어데 있어요?

척척할아버지…

이제 들어봐라, 지구는 태양의 주위를 한 바퀴 도는 동안 즉 1년 동안에 자기

몸체를 365.25회나 돌리면서 돌아가지 않느냐, 우리는 지구가 자기 몸체를 한 번 돌리는 기간을 하루라고 한다. 그런데 수성은 태양의 주위를 한 바퀴 도는 동안에 자기 몸체를 한 번만 돌린단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운동장 복판에 박혀져 있는 말뚝을 늘 정면으로 바라 보면서 그 주위를 한 바퀴 돌때 우리의 몸도 한 바퀴 도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수성에서는 언제나 한쪽 면만이 태양을 향하고 한쪽 면은 언제나 태양과 반대쪽을 향하게 된다.

익환…아하—알겠어요, 그러니까 수성에서는 밤과 낮이 바뀌우지 않겠군요.

척척할아버지…

그렇단다. 태양을 향하고 있는 쪽은 내내 낮이고 태양을 등지고 있는 쪽은 내내 밤이란다. 때문에 낮으로 되여 있는 곳에서는 연이 녹을 정도로 온도가 높고 밤으로 되여 있는 곳에서는 혹심한 추위와 어둠의 세상이 계속된단다.

익환…잘 알았어요. 그럼 다음 금성에 대하여 말씀해 주세요.

척척할아버지…

금성의 크기는 우리 지구와 거의 비슷하단다. 금성의 1년은 지구에서의 날수로 225일에 해당한다. 그러나 금성은 태양의 주위를 한 바퀴 도는 동안 자기 몸체를 약 11바퀴 돌린다. 따라서 금성의 1년은 약 11일로 되며 하루는 지구에서의 20일과 같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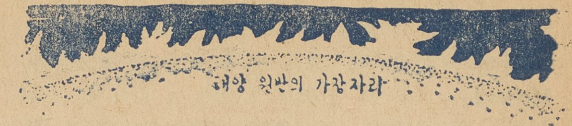
익환…그러면 금성의 하루는 낮이 10일 밤이 10일씩 계속 되는 셈이군요.

척척할아버지…

그렇단다. 그러니까 얼마나 지루한 밤과 낮이 계속되고 있는가를 알 수 있지, 이렇게 밤낮의 길이가 길기 때문에 낮에는 금성 표면의 온도가 50～60도까지 올라가며 밤이 되면 령하 25～30도까지 내려간단다.

익환…그런데 할아버지 금성에는 공기가 있나요?

척척할아버지…

금성에는 우리 지구의 대기와는 성질이 다른 대기층이 둘러 쌓여 있단다. 이것이 구름처럼 표면을 덮고 있기 때문에 금성의 《땅》은 망원경으로도 잘 들여다 볼 수

가 없단다.

영수…할아버지, 이번엔 화성에 대해 좀 말씀해 주세요.

척척할아버지…

화성은 금성 다음으로 지구에 가까운 별이다. 그리고 화성은 지구와 비슷한 점들을 많이 가지고 있지, 화성에서의 하루는 24시간 37분이고 화성의 1년은 지구의 1년보다 약 1.8배가량 길단다. 또한 화성에서는 지구에서와 같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바뀌는 계절의 변화도 있단다.

영수…그럼 기온도 지구와 비슷하나요?

척척할아버지…

기온은 지구에서보다 훨씬 낮다. 그것은 지구보다 태양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서 태양의 열을 적게 받기 때문이란다. 화성에서는 더운 때에라야 25도이고 해가 질 무렵에는 0도 이하로 내려가고 새벽이 되면 흔히 령하 40도까지 내려간다. 그리고 화성에는 대기가 있으나 매우 희박하다. 그것은 우리 지구에서 가장 높은 산봉우리 우의 공기의 밀도보다도 희박하다.

그러나 화성에는 지구에서와 같은 구름, 안개, 물, 수증기들이 있고 비도 드믈기는 하지만 가끔 내린단다.

영수…할아버지 그럼 화성에는 생물들이 살 수 있겠군요.

척척할아버지…

글쎄 그것은 아직 그렇다고 찍어 대답하긴 어렵다. 그러나 화성이 봄일 때에는 록색을 띠고 가을과 겨울에는 갈색과 회색으로 변하는 것으로 보아 아마 그곳엔 식물이 살고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영수…그럼 화성에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군요.

척척할아버지…

그렇다, 만일 화성에 사람이 살고 있다면 앞으로 너희들이 로케트를 타고 우주 려행을 갔을 때 그곳에서 만나 보게 될 것이다.

성환…할아버지, 이번엔 목성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척척할아버지…

목성은 지구보다 1340배나 되는 매우 큰 별이다. 이 별에서 재미나는 것은 하루가 지구의 시간으로 약 10시간 밖에 안되는데 1년은 지구에서의 12년이나 된다는 점이다.

성환…할아버지, 그것은 목성이 자기 몸체를 한 바퀴 돌리는 시간이 10시간인데 태양의 주위를 한 바퀴 도는 시간은 지구에서의 해수로 12년이나 걸린다는 말씀이지요.

척척할아버지…

그렇다. 그러니까 목성에 가서 그 곳의 력세로 한 살 먹는 동안이면 지구에 있는 사람들은 열 두살이나 먹게 될 것이다. 그리고 목성에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의 변화가 없고 언제나 같은 지방은 같은 계절로 되여 있단다.

성환…할아버지 다음엔 토성과 기타 행성들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세요.

척척할아버지…

그렇게 하자. 토성은 지구보다 750배나 되는 큰 별이다. 토성의 1년은 지구에서의 1년과 거의 비슷한데 하루는 대단히 짧아 10시간 조금 더 되는 정도이다. 토성에서 재미있는 것은 그 별 둘레에 기체와 작은 먼지들이 엉킨 둥그런 띠가 돌아 가고 있는 점이다. 이 띠는 두께가 약15km나 되며 망원경으로도 잘 보이지.

이 밖에 태양계에는 또 천왕성 해왕성, 명왕성 등의 행성들이 있다. 천왕성과 해왕성은 크기가 지구보다 60배나 되며 천왕성의 하루는 약 10시간 50분이며 해왕성에서는 약 15시간이다. 그리고 천왕성에서의 1년은 지구에서의 거의 64년이나 되며 해왕성에서는 164년이나 된다. 때문에 우리가 만일 그곳에가 산다고 한다면 거기의 력세로 한 살도 먹지 못하였는데 사람들은 한평생을 살게 될것이다.

성환…야! 참 한해가 굉장히도 길군요. 어서 그 별들에 찾아가 봤으면 좋겠네.

척척할아버지…이제 너희들은 멀지않아 신비로운 우주에로의 려행을 떠나게 될 것이다. 이미 쏘련에서 띄워 올린 첫 인공 행성—강력한 우주 로케트는 사람들이 앞으로 이 모든 별들에 려행할 수 있는 첫 길을 열어 주었다. 그러므로 우주 려행의 날은 우리에게 지금 가까운 앞날로 다가 오고 있다.

세계에서 1등가는 과학의 나라 위대한 쏘련은 이처럼 온세계 인민들의 행복을 위해 힘차게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

소년단원 동무들! 나는 지금 우리 나라 중부 지대의 동서 간과 남북을 련결시키는 평산—지하리, 삼등—세포간 750리'길 철도 공사장에서 막 달려 오는 길이예요. 이제 이 철도가 다 놓이게되면 강원도 산악 지대의 지하자원과 림산자원을 개발하는데서나 평원선 수송을 덜어주는 데서나 인민들의 생활을 더 잘 그리고 편리하게 해주는데서나 큰 도움을 주게 된답니다. 우리 나라 력사에 빛날 이곳 철도 공사에 나선 형님 누나들은 지금 얼마나 눈부시게 일하시는지 몰라요, 나는 가는곳 마다에서 그저 감탄만 하다 왔답니다. 나는 그 감탄스러운 일 중에서도 평산—지하리 철도 공사에서 제일 큰 장애물인 10만산을 정복한 2.8 돌격대 형님들의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나는 철도 공사장을 유유히 날아 다니며 산을 허물고 벼랑을 까부시며 얼음이 떠다니는 물속에 들어가 다리를 놓는 건설자 형님들의 힘찬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평산에서 10리 떨어진 공사장에는 10만 립방메터의 흙을 파내야 하며 100 메터가 넘는 굴을 뚫려야 하는 10만산이라는 큰 장애물이 가로 놓여 있었습니다. 이 10만산은 공사장에서도 큰 난관이여서 형님들은 모두 이 10만산이 걱정이라고들 하였습니다. 그런데 1월 17일 밤, 10만산 봉우리에서는 우둥'불이 활활 타 올랐습니다. 우둥'불에 둘러 앉은 형님들은 10만산을 물리치기 위한 투쟁에서 혁명 투사들처럼 굴할 줄 모르는 굳센 마음으로 결심들을 다지였습니다. 돌격 대장 최 명권 형님은 돌격대원들 앞에 이렇게 웨쳤습니다. 《항일 빨찌산 허 상만 동지는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위하여 자기의 하나 밖에 없는 목숨도 서슴없이 내 바치지 않았는가……그러니 우리의 난관은 아무것도 아니요…… 우리는 허 상만 동지의 불굴의 혁명 정신을 본받아 반드시 10만산을 정복해야 하오 동무들 해냅시다》 그러면서 최 명권 형님은 10만산 정복을 위한 돌격대를 조직할 것을 제기하였습니다.

이리하여 박 원진 영웅의 중대에서 복무한 최 명권 형님을 중심으로 2.8 돌격대가 조직되게 되였습니다.

돌격대 형님들이 10만산에 달려붙은지

불과 얼마 안되는 기간에 벌써 1만 7천여 립방메터의 흙이 날아 났습니다. 나라의 사회주의 건설을 더 빨리 완성하기 위해 일떠선 형님들에 의하여 10만산은 폭폭 자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밤낮을 이여신 바람이 나서 일하던 돌격대 형님들 앞에는 뜻하지 않았던 큰 난관이 나타났습니다.

하루 아침 나는 걱정에 잠겨 있는 형님들에게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하고 물었습니다.

《생각지 않았던 120메터의 굳은 암벽이 나타났소 그러니 우리 일은 몇 갑절 더 힘들어졌고 몇갑절 더 많아졌지요, 그렇다고 당 앞에 맹세한 개통식 날은 하루도 어길 수 없소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꼭 해낼 결심입니다》라고 돌격 대장인 최명권 형님은 말씀하시는 것이였어요.

따찌까와 밀차를 가지고 흙을 나르는 작업만을 하던 형님들에게는 암벽을 깎아낼 수 있는 그런 도구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개통식을 앞당기자고 시간을 다투어가며 일하는 건설장 모든 형님들의 눈부신 투쟁을 생각할 때 그들은 기계가 올때까지 공사를 중단할 수는 없었습니다 형님들은 파철을 얻어다 정, 마치 등 기타 여러가지 도구들을 직접 만들어 쓰면서 암벽과 싸웠습니다. 암벽은 어찌도 굳었던지 정을 박을 때면 불꽃을 튕기며 쌀알처럼 조금씩 부스러질 뿐이 였습니다. 좀처럼 자리가 나지 않는 일을 계속하게 되자 나이 좀 어린 어떤 형님들은 맥이 풀리군 했습니다. 그러나 형님들의 머리'속에는 돌격대를 조직하던 날 밤 우등'불 모임이 떠오르군 하였습니다. 그 때마다 형님들은

《그렇다 난관은 투쟁을 거쳐서만 극복할 수 있다. 허 상만 동지처럼 불타는 혁명정신을 가지자》라고 더욱 굳게 마음 다지군 하였습니다.

이런 때 당 중앙 위원회 2월 전원회의에서는 모든 난관을 박차고 세상을 놀래우는 기적들을 낳고 있는 이곳 건설장 형님들에게 열렬한 축하의 편지를 보내여 왔습니다. 이 영광스러운 편지를 받은 2.8 돌격대 형님들은 당의 두터운 신임과 격려에 보답하기 위해 어떤 난관이 있드래도 당 앞에 한 맹세를 꼭 실천하자고 다시 굳게 맹세를 다지였습니다.

편지를 받은 돌격대원들의 작업은 더욱 활기를 띠였습니다. 때 마침 기계를 구하러 떠났던 돌격 대장이 굴진기를 구해 가지고 돌아 왔습니다. 돌격대원들은 기뻐서 함성을 올리였습니다. 공사는 더욱 빠른 속도로 진행되였습니다.

그러나 새 난관이 또 다시 앞을 막아 나섰습니다. 10여메터가량 뚫고 들어 갔을 때 물이 콸랑콸랑 흘러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물은 어느듯 무릎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러나 굴할 줄 모르는 돌격대원들은 밤낮으로 일하여 하루 책임량을 300

%까지 넘쳐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암벽은 하루에 7여메터씩 뚫려 나갔습니다. 그런데 60메터가량 뚫고 들어가자 이번엔 공기가 부족하여 그 이상 더 나갈 수 없게 되였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어렵고 힘든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공기가 희박한 좁은 굴 속에서 그것도 쇠'덩이 처럼 굳은 돌을 까내야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라의 사회주의 건설에 모든 것을 다 바쳐 싸우는 형님들 앞에는 극복못할 난관이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드디여 돌격대 형님들은 수건에 솔잎을 싸서 마스크를 만들어 호흡을 헐하게 하면서 암벽과 싸웠습니다.

굴 이쪽에서는 2.8돌격대 형님들과 10만산 정복 돌격대 형님들이 적과 싸우는 용사들 처럼 기세 드높이 뚫려 나갔고 저쪽으로는 로동자 아저씨들을 도와 황해남도 농촌에서 달려온 5중대 민청원 형님들이 맞받아 나왔습니다.

형님들의 마음을 애태우며 그렇게도 심술궂게 굴던 100메터 굴도 용감한 형님들의 불굴의 투쟁에 드디여 무릎을 꾸는 날이 오고야 말았습니다.

4월 중순!

2.8돌격대 형님들이 내려친 곡괭이에 마지막 암벽이 무너지고 둥그런 구멍이 났습니다.

《만세!》

·이쪽으로 나간 로동자 형님들과 저쪽에서 뚫려온 농촌 형님들은 서로 굳게 붙안고 기쁨에 넘쳐서 얼굴을 부볐습니다.

《만세! 만세!》

돌격대원 아저씨들의 함성은 온 공사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가장 어려운 난관이라고 걱정하던 10만산을 이렇게 용감히 물리친 공사장 형님들은 더욱 용기를 내여 개통식 날을 더 앞당겨 실행하자고 물불을 가리지 않고 돌격하고 있습니다.

소년단원 동무들 우리 다 함께 사회주의 건설에 몸바쳐 일하시는 이 형님 누나들에게 감사를 드립시다.

우리 나라의 산과 들에서 사는 새와 짐승들

과학원 자연 조사 연구소 소장　　원 홍 구

솔부엉이

동무들! 우리가 사는 주위를 한번 살펴 보십시오. 얼마나 화려하고 아름다운 자연입니까!

이 아름답고 살기 좋은 우리 나라의 산과 들에는 가는 곳마다 귀중한 땅속 보물들이 가득차 있고 가지가지 유익한 동물들과 식물들이 또한 수많이 자라고 있습니다. 아름드리 나무들과 화려한 꽃들로 덮혀있는 우리 나라의 산과 들에는 420여종이나 되는 새들과 100여 종의 짐승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 많은 새들과 짐승들은 거의 모두가 우리들의 생활에 많은 리익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새들과 짐승들은 우리의 생활에 어떤 도움들을 주고 있을가요?

새들 가운데는 농사와 산림에 그리고 사람들의 건강에 해를 끼치는 곤충들과 또한 쥐를 많이 잡아 먹어 우리에게 도움을 주며 고기나 털을 남겨 줌으로써 우리의 생활에 직접 리익을 주는 것들도 있습니다. 또한 그 아름다운 모습과 지저귐으로 하여 자연을 더 아름답게하며 과학을 연구하는 일에 도움을주는 매우 귀중한 것들도 있습니다.

쇠기러기

그러면 그처럼 리로운 새들이란 대체 어떤것들일가요?

그것은 참새를 제외한 모든 새들을 들어 말할 수 있습니다.

즉 연작목에 속하는 작은 새들인 할미새류, 동고비류, 박새류, 찌르러기류, 꾀꼬리류, 제비류, 티티새류, 나무발발이류, 솔딱새류, 딱따구리류, 후리새류, 청조류, 뻐꾸기류들은 모두 해충들을 많이 잡아 먹는 리로운 새들입니다. 그리고 새나 짐승의 고기를 먹고 사는 육식조류중에서도 밤에 활동하는 부엉이류, 낮에 활동하는 저광이 등은 주로 쥐를 잡아 먹고 사는 리로운 새들입니다.

티새

다음으로 우리들에게 고기와 털을 남겨 줌으로써 직접 리익을 주는 새들로써는 멧닭, 들꿩, 꿩, 메추리 등 닭류와 쇠기러기, 큰기러기, 진경이, 청뒹오리, 검독오리, 되강오리, 태극오리, 가창오리등 기러기 오리류 그리고 멧비들기들을 들 수 있습니다.

이 밖에 백두루미, 재두루미, 황새들과 대백로, 중대백로, 쇠백로, 당백로 등은 우리의 자연을 아름답게 하여 줄 뿐만 아니라 과학 연구 사업에 귀중한 자료로 되는 것 들입니다.

다음으로 우리에게 리익을 주는 짐승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가요? 우리 같이 알아 보기로 합시다. 우리 나라의 산과 들에서 살고 있는 100여 종의 짐승들 가운데서 쥐, 늑대, 승냥이 등 몇몇 종류를 제외하고는 거의 다 우리에게 아주 리롭거나 그렇지 않으면 해로운 점보다 리로운 점이 더 많은 것들입니다.

우리에게 털과 가죽을 남겨 주는 리로운 짐승들로는 검은 돈, 수달, 산달, (담부) 누른돈, 오소리, 족제비, 너구리, 여우, 삵, 청서, 다람쥐 등을 들 수 있습니다.

고기를 주는 리로운 짐승들은 노루, 복작노루, 멧돼지, 곰, 사슴들입니다,

또한 생약 원료를 남겨 주는 리로운 것으로는 사슴, 곰, 사향노루, 멧돼지 들을 들 수 있습니다. 이 외에 박쥐류는 모기, 밤나비들을 잡아 먹음으로써 우리의 건강에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짐승들에게서 우리는 기름과 여러가지 공예품 자료들도 얻어 내게 됩니다.

이상에서 간단히 말한 바와 같이 우리 나라의 산과 들에서 사는 새와 짐승들은 그 대부분이 모두가 우리에게 매우 리로운 것들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것들을 잘 보호하며 키워내고 옳게만 리용한다면 우리는 돈을 안들이고도 자연에서 국가 목장의 몇 갑절 되는 리익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 모든 것들이야 말로 얼마나 귀중한 나라의 재산입니까?

그러므로 조선 로동당과 공화국 정부에서는 항상 새와 짐승들을 보호하며 증식시키기 위하여 여러가지 훌륭한 조치들을 취하였습니다. 특히 지난 2월 16일 최고 인민 회의 상임 위원회는 유용한 동물과 식물들을 보호하며 증식 시킬데 관한 정령을 채택하였습니다. 이것은 우리 나라에서 사회주의 건설이 완성되여 감에 따라 인민들의 생활을 더욱 윤택하게 하며 우리 나라를 더욱 아름답고 살기 좋은 나라로 하루 속히 꾸리기 위한 조치입니다.

우리들은 로동당이 가리키는 길에서 자기의 아름다운 조국을 열렬히 사랑하며 산과 들을 더욱 아름답게 꾸리기 위하여 이 정령에서 밝힌 내용들을 모두다 훌륭히 지켜 나가야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하여 우리는 첫째로 새와 짐승들이 깃들어 사는 산과 숲, 그리고 공원과 정원, 길'가들에서 나무를 절대로 베거나 꺽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미 심은 나무들을 잘 가꾸며 더 많은 나무들을 심어 리로운 새와 짐승들에게 살기 좋은 조건을 만들어 주며 우리의 자연을 더욱 아름답게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오리

둘째로 지난날까지 일부 동무들에게 있었던 리로운 새의 둥지를 털어 새 알을 깨버리거나 새끼를 죽여 버리는 수치스러운 일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되겠습니다. 리로운 새들을 많이 번식시키기 위하여 우리는 새들의 생활 습성을 자세히 연구 관찰하고 그의 습성에 알맞는 《인공소상》들을 학교와 집 근처 그리고 공원이나 산들에 많이 만들어 걸며 리로운 새들이 깃들어 잘 자라도록 물도 주고 모이도 주면서 잘 돌봐 주어야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는 짐승의 굴을 허물거나 불을 때거나 올가미를 걸어 놓고 짐승들을 잡아 내는 일들이 절대로 없어야 하겠습니다.

세째로 전체 소년단원들은 언제 어떠한 곳에서나 나라의 허가 없이는 리로운 새, 짐승들을 절대로 잡아서는 안되며 전체 인민들이 누구나 리로운 새, 짐승들을 항상 아끼고 사랑하도록 가정에서나 마을에서 잘 선전 해설하여야 하겠습니다.

우리들은 모두다 자기 조국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리로운 새, 짐승들과 식물들을 아끼고 사랑하며 정성껏 보호 증식시키기에 다같이 힘씁시다.

노루

사향노루

족제비

오소리

여우

곰

로케트려행 (8)

1.

소년단원 동무들! 세계 지도를 펼치고 아프리카 대륙을 찾으세요. 지금 나의 로케트가 날고 있는 이곳은 제2차 세계 대전 때까지만 해도 《암흑 대륙》이라고 불리웠답니다. 그것은 이 대륙에 독립된 나라라군 없었고 이곳 인민들과 소년들은 식민주의자들의 억울한 노예살이를 계속한 까닭입니다.

그러나 오늘의 아프리카는 전혀 사정이 달라졌습니다. 아프리카의 지도 우에는 오늘 식민주의의 쇠사슬을 끊어 버리고 독립하는 나라들이 날로 늘어가고 있으니까요.

2.

어느날 나는 아프리카 대륙의 중심부에 있는 벨기령 콩고에 이르렀습니다.

여기는 이 나라 수도 레오폴드빌의 아프리카인 거리입니다.

그런데 이것 보세요. 수 많은 사람들이 노한 사자와도 같이 일어나 《콩고 독립 만세!》 《식민주의자들은 물러 가라!》고 웨치며 시위를 진행하지 않겠어요.

흥분된 시위 군중들의 기세에 겁을 먹은 식민주의자들은 갈팡질팡 헤매며 도망칠 구멍만 찾고 있었어요. 벨기의 한 자본가놈은 금강석 보따리를 메고 달아났고 양코배기 미국놈은 우라늄광을 짚차에 싣고 도망가는 것이였어요.

3.

시위자들 속에 끼워 있든 한 로동자 아저씨는 나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80년이란 오랜 기간을 벨기 식민주의자들에게 피땀을 빨려 왔단다. 더는 이대로 살 수가 없어 우리는 독립을 위해 싸우고 있다》

그런데 이때 땅크와 장갑차들이 요란한 소리를 내며 굴러 오더니 기관총을 휘두르며 포사격을 마구 드려대는 것이였어요.

시위자들 속에서는 많은 희생자들이 생겨 났어요. 그러나 그들은 《독립 만세!》 《만세!》를 웨치며 계속 싸워 나가는 것이였어요.

4.

나는 이곳에서 벨기 경찰놈에게 붙들려간 콩고 소년의 용감한 투쟁 모습을 또 보았어요.

경찰놈들은 소년을 마구 때리고 지지면서 《시위 조직자의 두목을 대라!》 《공산주의자의 이름을 대라!》고 온갖 지랄을 다 부렸어요. 그러나 소년은 조금도 굴하지 않고 마지막 순간까지 끝끝내 이겨 나갔어요. 그는 쓸어지면서도 힘차게 웨치는 것이였어요.

《개놈들아 어서 물러가라, 콩고는 콩고 사람의 것이다. 독립 만세!》

5.

벨기령 콩고를 떠난 나는 영, 불 식민주의자들이 두 갈래로 찢어 가지고 통치하는 카메룬에 갔어요. 나는 먼저 영령 카메룬에 있는 아프리카인 거리에 갔댔지요. 그런데 이곳 미국놈 비행장에서 나는 하루 16시간씩 일한다는 한 소년을 만났어요.

그는 막 눈물이 글썽해서 말했어요.

《너는 참 행복한 아이구나, 우리는 영국놈들과 미국놈들의 채찍밑에서 하루 16시간씩 일하면서도 굶주리고 있단다》

《그래 너희들은 학교에도 못가니?》

《학교가 다 뭐냐, 우리 나라 소년들은 94%가 모두 공부를 못하고 이렇게 놈들의 채찍 밑에서 시달리고 있단다》

6.

나는 그곳을 떠나 불령 카메룬에 찾아가 보았습니다. 불란서 총독부 청사가 있는 거리에 갔을 때입니다. 거리에서는 대 군중 시위가 한창 벌어지고 있지 않겠어요. 시위 군중들은 모두 《카메룬은 즉시 통일 독립되여야 한다》 《영불 군대는 물러가라!》고 소리 높이 웨치는 것이였어요.

나는 시위자들의 앞장에 서 나가는 카메룬 민주 청년 동맹의 한 맹원 형님을 만났어요. 그는 나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1960년 1월 1일 전으로 반드시 독립하고 우리의 손으로 나라를 다스려 나갈 것이다》

이것은 바로 이 나라 인민들의 한결 같은 투쟁의 구호랍니다.

7.

나는 다시 《호수의 나라》라고 불리우는 니아살랜드에 가보았습니다.

이 나라 면적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유명한 니아사 호반을 지나 불란티레시에 이르렀을 때입니다. 거기서는 마침 아프리카인 민족 대회의 대표 1천 여명이 모여서 독립을 찾기 위한 의논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한결 같이 일어나 《더는 참을 수 없다. 다 같이 일어나 싸우자!》 하고 결의하는 것이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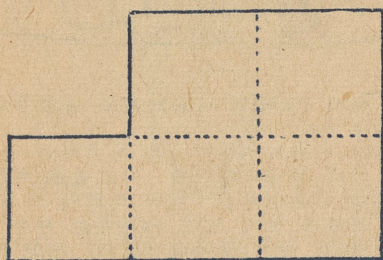
8.

아프리카인 민족 대회가 있은 며칠 후였어요. 내가 잠베지 강반에 있는 카리바 땜에 갔을 때 그곳 6600 여명의 로동자들은 임금 인상과 독립을 위해 총파업을 진행하는 것이였어요. 어떤 로동자들은 동부 아프리카로 통하는 도로를 차단하고 그곳에 달려 드는 영국 식민주의자들의 군대인 경비 대원들에게 돌벼락을 퍼붓는 것이였어요.

× ×

아프리카 려행을 마치면서 나는 다시금 느꼈어요. 이곳 아프리카에도 자유와 해방의 날이 지금 막 동터 오고 있다는 것을!

그리하여 머지 않아 아프리카는 《암흑 대륙》이 아니라 평화롭고 살기 좋은 《밝은 대륙》이 될 것입니다.

1. 순희는 아래와 같은 천쪼박을 가지고 두번 가위질 하여 정 4각형의 보자기를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베여 붙였을가요?

(인민 학교 동무들이 풀 문제)

2. 아래의 수'자들이 모두 정수로 제해지는 수'자는 어떤 수'자일가요? 그것들을 모두 찾아 내세요.

999. 888. 777. 666. 555. 444. 333. 222. 111

(초급 중학교 동무들이 풀 문제)

2호 현상문제 해답 《모범 답안》

1의 답

물은 왼쪽으로부터 오른쪽으로 흐른다. 왜냐 하면 치차의 이가 접촉하는 곳에서는 치차의 이가 밀접하게 맞닿기 때문에 물이 지나갈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물은 오른쪽으로 흐르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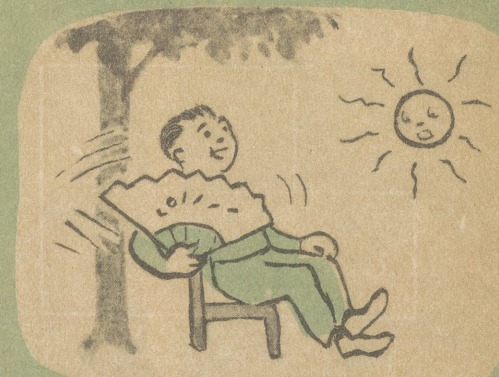
2의 답

17,560마리

달수	어미 토끼수	낳은 새끼수	새끼 루계
1	1	5	5
2	1	5	10
3	1	5	15
4	6	30	45
5	11	55	100
6	16	80	180
7	46	230	410
8	101	505	915
9	181	905	1820
10	411	2055	3875
11	916	4580	8455
12	1821	9105	17560

함북도 경원군 경원 제 9 중학교 2년 리 종국

당선자

함북도 경원 9중학교 2년 리 종국
황북도 린산군 상암 중학교 2년 민 선숙
평양시 제 2 고급 중학교
초급반 2년 리 세운
함남도 흥남시 흥남 초등 학원
초급반 손 승선
평북도 태천군 신도 중학교 1년 김 영옥
강원도 평강군 평강 중학교 강 영달
자강도 전천군 길상 중학교 홍 석환
개성시 개성 녀자 고급 중학교
초급반 박 정득

1959년 4월 10일 인쇄 조선 민주 청년동맹 중앙 위원회 소년 잡지
1959년 4월 15일 발행 《소년단》 1959년 제 4호 (총 114호)
발행소 민 청 출 판 사 인쇄소 로동 신문 출판 인쇄소

ㄱ—20369 값 25 전 150,000부 발행

두 소년단원의 앞날

200%

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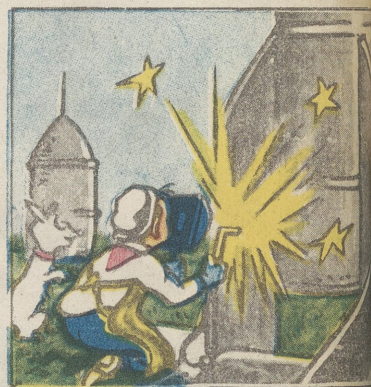
원작 소련 《유쾌한 그림 책》에 의함

소년단원 동무들! 자! 철이와 함께 우주 려행을 떠나 봅시다.

철이— 야! 저기 인공 위성이 날아 간다.

철이— 나도 한번 별 나라로 날아가 보았으면…

철이— 옳지! 좋은 수가 있다.

철이— 이것이면 훌륭한 로케트가 될 수 있어

로케트는 재빨리 만들어져 간다.

철이는 차비를 갖추기에 바쁘다.

철이의 우주 려행을 축하해!
철이~ 고마워 그럼 안녕히

출발!

철이는 별 나라로 떠났다. 철이의 우주 려행은 어떻게 될가요?